

ISSN 2383-9872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

2017년 겨울



# 노들마리 리 노



(사)노들  
 노들장애인아학  
 노들장애인지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공장 「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 「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노란들판’, 함께 꾸는 꿈.

\* 기차길옆작은학교의 응원



# 노들바람 이 야 기 구 성

-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 김유미
- 03 누구의 일도 아닌 일 \* 장선정
- 05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 정창조
- 09 [고병권의 비마이너] "옳은 말은 옳은 말일 뿐이다" \* 고병권
- 14 [형님 한 말씀] 2017년을 보내며 \* 김명학
- 16 [장판 핫이슈] '차별과 시혜'를 넘어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 박철균

- 20 소리 없는 이들의 삶은 계속된다 \* 가을
- 23 노란들판의 겨울맞이:) \* 진실로
- 24 어쩌다 보니 10년- 노란들판 공대식, 조수안, 이범민 인터뷰 \* 김상희
- 26 [노들아 안녕] 날개 \* 김영미
- 27 [노들아 안녕] 오랫동안 이 세계를 알아가 보고 싶다 \* 유지영
- 29 [노들아 안녕] 드디어 페이스 친구가 되었다 \* 윤민진
- 31 [교단일기] 우리의 몸을 찾아서 \* 대추
- 34 중구난방 세미나 뒷담화 \* 박준호
- 39 노들장애인야학의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마치며 \* 박성준
- 41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할까 \* 최영은
- 42 <추신>을 관람하고 나서... \* 이은애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제113호 2018-01

만든곳 (사)노들-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공장「노란들판」·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유미  
편집위원 김도현 김명학 김상희 김진수 안연주 정소영 민아영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02-518-1571)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임입니다.

- 43 '여기, 노란들판입니다', 구멍이 송송 진행요원의 뒷이야기 \* 민아영
- 48 우여곡절, 노들 퍼플퍼스트 People First! \* 박임당
- 54 어둠고꼬지 <노들 선감도에 가다> \* 이현아
- 59 왜 어둠이라고 했을까? 이제는 알 것 같다 \* 박정숙
- 61 베이징에 다녀왔어요!! \* 이형숙
- 63 '나도 혼자 산다' 단기 체험회를 마무리하면서 \* 최정희
- 64 장애인독립진료소를 지원, 후원해주세요!

- 68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오직 운뿐이라~! 오 지 우 뿐이다~!  
/ 오지우 인터뷰 \* 김진수
- 72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남옥 씨랑 같이 웃고 웃으며 살립니다  
\* 이경숙
- 73 [보급보급 할보상당소] 65세가 되면 하루 4시간만 살라는 건가  
/ 박명애 인터뷰 \* 민아영
- 78 조선동 님을 만나다 \* 박준호
- 80 [노들 책꽂이] 이 죽음들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다 \* 강혜민
- 83 최후변론 \* 박경석
- 87 고마운 후원인들

## 노들바람을 여는 창 -

≡ 김유미

♪“일자~리도 일 만개” 후렴구에 ♪“나도 노동하고 싶어” 랩(?)이 무한반복 깔리는 ‘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 제외 폐지 송’. 새롭게 꾸려진 노동권 농성장에선 이 노래를 매일같이 부릅니다. 또 무슨 농성을 하느냐, 아직 소식을 못 들은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저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남산스퀘어 빌딩 11층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최저임금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었을 최저임금법. 그 법의 제7조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법이 품지 않는 이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입니다. 이 조항을 폐지할 것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 일자리 1만개를 만들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들의 메이데이” 2009년 노들야학은 노동절 집회에 이런 구호를 큼지막하게 써서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자본주의를 거부한다” 일본의 푸른잔디회가 외쳤던 구호도 베껴서 써갔습니다. 어떤지 너무나 혁명적인 구호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야학에선 멋지고, 힘 받던 이야기가 노동자들 틈에 있으니 4

차원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날 많은 이들이 우리를 사진 찍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구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무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위치에서 ‘노동권’을 주장합니다. 중증장애인으로서,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몸 자체로, 노동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1만개~1만개~” “나도 노동하고 싶어” 함께 불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성장에서 부르는 이 노래는 끝이 없습니다.

이번 호에 신지 못한 이야기. 지난 11월 13일 십여년 시간동안 장애인운동을 함께해온 배정학 활동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정학님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에서 오래 활동하셨고, 성북구 장수마을에 살면서 ‘동네목수’로, 주민협의체 대표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장수마을이 노들 근처 낙산에 위치한 까닭에 배정학 동지가 이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장님, 배정학님의 명복을 빕니다.



≡ 장선정

쓸데없이 부지런한 노란들판 노동자  
쓸데없이 원칙주의자인 각종 잡무 담당  
쓸데없이 손이 큰 게릴라 레스토랑  
‘장식당’ 주방장

## 누구의 일도 아닌 일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무척이나 오랜 세월 교장이어서 마치 태어날 때부터 교장이었을 것만 같은 박경석과 저는 노들장애인야간학교 교사동기예요. (역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심지어 제가 선배랍니다.) 같이 신입교사 트레이닝을 시작해서 함께 인준을 받았어요.

그 후에, 박경석이 우직하고 끈덕지게 노들의 사람으로 남아서 광화문 사거리에서 버스를 멈추고, 지하철에 뛰어들어 쇠사슬을 묶는 동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 결혼 하고 아이를 낳았죠.

첫 아이를 낳고 막 젖을 땀을 무렵 박경석이 연락을 했어요. ‘니가 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좋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노란들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사실 일을 시작했다기보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태로 그저 접어들었다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어떤 일은 설명할 수 없이 별안간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라곤 할까요.

그리고 2년이, 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분명 4계절을 지났을 텐데도 몹시 추웠던 기억, 캄캄한 길을 달려서 아이를 데리러 가던 기억, 항상 피곤했던 기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노란들판을 그만두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큰 위기였던 것 같아요. 몹시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왜 아픈 상처를 문득 다시 봤는데 다쳤던 순간이 떠오르면서 다시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목이 따끔거려요.

업무능력이 기대에 닿지 못 하고  
내 마음만큼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 하더라도  
나는 '누구의 일도 아닌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일을 정리하고 있던 어느 날, 박경석이 찾아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너도 다 컸는데 책임을 나눠줘  
야지 힘들다고 그렇게 그만두면 어쩌냐.'고요. 트레이  
드마크인 허잡은 소리도 없던 그 한 문장이 그 후로 오  
랫동안 제게 마음의 빗처럼 남아 있었어요.

7년이 지났고, 다시 마치 그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  
었다는 듯 저는 노란들판으로 돌아 왔어요. 막 스무살  
이 되었을 때 천지분간 못 하는 막내교사로 노들에 들  
어왔는데 이젠 젊은 직원들의 대화를 잘 알아듣지 못  
하는 나이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마음을 말씀드  
려 볼게요. 저는 생각이 많고 그야말로 쓸데없이 진지  
한데다 저한테만 오면 개그가 다큐가 되는 비판성을  
타고 났어요. 애써 노력해야 보통이 될까 말까 그래  
요. 그렇지만 노란들판으로 돌아오면서 결심한 게 있  
었어요.

업무능력이 기대에 닿지 못 하고 내 마음만큼 동료  
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 하더라도 나는 '누구의 일도 아

닌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정교하게 업무분장을 해도 어딘가 구석엔 반드시  
'누구의 일도 아닌 일'이 있더라구요. 또 대개 그런 일  
들은 미루면 미뤄지고, 해도 티가 잘 나지 않거나 아무  
도 모르기가 쉽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으로 조  
용히 바지런하고 싶었어요. 비록 현실은 지각하는 직  
원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월마감을 해야 한다고 목소  
리를 높이고 고객과 싸우면서 항상 시끄럽게 굴고 있  
지만요.

여러 이유로 2017년을 무척 어렵게 마무리 하고  
있어요. 시린 발 구르다 보면 또 어떻게 지나가게 되겠  
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에겐 항상 긴 시간보다 어느  
순간을 겪어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내가 이려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도  
'당신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싶어서도 아  
니고,

그저 저는,  
한 개인으로  
또 "노란들판"이라는 노력하는 기업의 구성원으로  
'누구의 일도 아닌 일'을 발굴하기 즐기는  
쫄 쓸데없이 부지런한 직원으로 열심히 살고 싶어요.

내년에도 모두모두 건강하세요. ^^



### 정창조

노들야학 신입교사다.  
장인이 만든 간식과 대한극장  
카라멜 팝콘을 좋아한다.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잘  
하지는 못한다. 강여사에게  
잔소리를 들으며 산다.  
마피아와 야쿠자가 나오는  
영화를 좋아한다.

##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노들장애학공리소 '한나 아렌트' 강좌를 마치면서

### “운명했다.”

지난 7월 28일, 고장선생님이 살짝 쓴 목소리로 박종필 감독님의 죽  
음을 전해 왔다. 노들장애학공리소에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강  
좌를 시작하기 얼마 전이었다. 나는 박종필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 고작  
몇 번 스치듯 나는 어색한 인사들만이 흐릿하게 기억에 새겨져 있을 뿐이  
다. 그리고 '박종필'이 '누구'인지를 마주하기도 전에 그가 떠나버렸기 때  
문에, 여전히 그는 내게 단지 '감독님'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어떤 이야기를 남겼는지 안다. 그는 여느 이야기꾼  
들처럼 청자들에게 자신은 남겨두지 않고서, 단지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  
는 이들의 행위와 그들이 겪은 사건들만을 세계에 남겨두었다(그와 함께  
울고 웃으며 싸우고 논쟁하고 부둥켜 안아본 이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겠지  
만). 그가 온갖 투쟁 현장에 출몰했음에도, 그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은 별  
로 남아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그나마 찍힌 사진들에서도 그는 대개 카  
메라로 자기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 대신 장  
애인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이, 노들야학에서 학업과 투쟁, 조직 운영  
을 두고 서로 논쟁하던 이들이, IMF 이후의 실직 홈리스들이, 그리고 세월  
호의 원혼들이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 남아 있다.

화려하고 거대한 것만을 기억하는 역사는 박종필이 기록한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기껏해야 신문 기사 한 구석에 보일 듯 보이지 않게 배치해  
놓는다. 이 사회에서 억압받고 차별받아 온 자들이 살아가는 장소들처럼  
초라하고 비루한 그 위치에. 그나마도 이 '정보화된 파편들'은 하루만 지나  
면 폐지함 속에 구겨져 쌓여간다. 다른 파편들의 잔해 더미에 뒤섞여 그 정

‘누구’인지도 모르는  
박종필이라는 유명이  
시간의 이음매를  
끊어내고선  
강의록을 작성하는 내내  
내 앞으로  
출몰해 왔던 것이다.

체를 알아볼 수 없어질 때까지. 타임라인이 매순간 바뀌어대는 SNS에서  
는 심지어 몇 분 만에 휙 흘러가 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하고 더 시  
급하며 더 거대한 정보들이 이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다.

그러나 (단순 정보가 아닌) 이야기는 소진되지 않는다. 이야기는 이  
야기되고 있는 사건 및 행위를 청자들의 상상 속에서 되풀이 하게 만들  
며, 해석과 또 다른 이야기의 연쇄를 유발한다. 탁월한 이야기꾼은 이 연  
쇄를 위하여 이야기되기를 기다리는,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망각될 위험  
에 처해 있는 작고 사소한 것들의 진귀함을 반영구적으로 세계에 남겨둔  
다. 그리고 그가 한 이야기는 어쨌든 가상이자 허구, 기껏해야 실재하는  
사건들의 흐름을 침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자들의 현실 세계를 구성  
하곤 한다. ‘기억의 공동체’는 그렇게 형성된다. 즉 현실 세계를 공유하  
는 이들의 사이-안(in-between)에서. 출현하자마자 사라져 버린 행위  
들과 죽은 이들, 즉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비로소 현실성을 획득  
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렇다면 노들이란 공동체에서 박종필이라는 이야기꾼은 어떤 존재  
인가? 그의 작품들은? 그렇잖아도 아렌트는 이야기가 인간 실존에서 갖는  
의미, 이야기가 정치 세계에서 갖는 의미에 깊이 천착한 이었던지라, 아렌  
트 강좌를 준비하는 내내 나는 이 질문에 과도하게 신들려 있었다. (어느  
철학자의 말을 표절해 보자면) ‘누구’인지도 모르는 박종필이라는 유명이  
시간의 이음매를 끊어내고선 강의록을 작성하는 내내 내 앞으로 출몰해 왔  
던 것이다.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자유, 혁명, 인권, 노동, 작업, 행위,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세계소외, 악의 평범성……. 아렌트를 다룰 때 핵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비교적 거대하고 체계화 된 형태의 이 개념들 사이로 내  
가 굳이 ‘파리아’(pariah)라는 거칠고 애매한 개념을 강좌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삼은 이유도 아마 이 유명의 요구 탓이었으리라. 파리아는 ‘버림받  
은 자들’을 의미하며, 박종필은 이런 이들을 기록하며 일생을 보냈다. 더군  
다나 이 강좌는 파리아들로 가득한, 그것도 꽤나 멋진 파리아들이 함께 삶  
을 꾸려가는 노들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질 사건이 아닌가.

아렌트도 ‘버림받은 자’였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  
해 나치 독일을 떠난다. 그러나 이 유대인을 공식적인 시민으로 받아들여



주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게 아렌트도 당대  
많은 유대인들처럼 무국적 난민으로 살아간다. 무려  
18년이나 말이다. 무국적 난민은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며, 심지어 국가는 그들에게 의무를 부  
과하거나 억압하기조차 귀찮아한다. 그들은 인간이지  
만, 단지 그 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단지 인간일 뿐  
인 이들”은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 시민  
의 자격을 갖춘 이들이 공유하는 세계가 그들에게는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비시민’으로서 겨우  
‘단지 인간’이라는 초라한 타이틀만을 유지해 갈 수 있  
을 뿐이다. 방구석에, 장애인 수용시설에, 형제복지원  
에, 선감학원에 갇힌, 혹은 고향을 떠나 인도양과 지중  
해를 표류하며 그 존재 자체가 불법이 되어 버린, 아렌  
트가 죽은 지 5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에도 남아있  
는 이 시대의 ‘비시민 인간’들처럼.

아렌트는 자신이 이러한 처지에 내던져진 이유가  
단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일 뿐임을 잘 알고 있  
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로부터 도피하려 하지 않는  
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도리어 더 강조하  
고 다녔다. 물론 아렌트의 이러한 태도는 역사적, 생물

학적으로 고정된 ‘유대인성’을 설정하고, 거기에 자신  
을 합치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유대인 난민이 억압  
받고 있다는 혹은 ‘무국적자’로서 자신이 거주하는 국  
가로부터 억압 받을 자격조차 갖지 못하다는 ‘정치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대한 책임  
을 떠맡고자 했던 것뿐이다. 아렌트가 강조한 삶의 태  
도, 즉 ‘의식적 파리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러한 것이다. 의식적 파리아는 자신이 선 그 시좌(視  
座)에서 주류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며 저항하는 길  
을 걷는다. 그는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은 채 억압받는  
자기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실  
적’이며, 주류 사회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 있기 때  
문에 도리어 그 주류 사회를 더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  
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렌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A가 A라는 이유로 공격받는다면, 독일인, 프랑  
스인,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A로서 싸워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많은 파리아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매력을 인정받아 주류 사회에 ‘동화’되  
려 한다. 그리고 조금 안정적인 상황이 도래하면 자신  
의 비참한 과거, 자신과 같은 정체성으로 분류되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걸고  
세계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비로소  
그에게 자유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며,  
'인간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에게  
참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  
즉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들의 비참한 현실을 망각하고서, 이제 자신은 주류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낙관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렌트에 따르면 파리아들은 주류 사회에서 대개는 여전히 파리아로 남아있을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다시 억압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 아무리 자신의 과거와 역사를 망각하려 해봤자, 과거는 딱지처럼 계속 그에게 따라 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이 프랑스에 간다고 곧바로 프랑스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한다고 한국인과 동일해질 수 없는 것처럼,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망각이나 자기기만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방인 및 소수자가 자신을 여전히 '국외자', '내부의 외부'로 취급하는 주류 사회의 구성원으로 무작정 편입하려 하거나, '자신도 (추상적인)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며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는 다수자들에게 해방을 애원하는 것은 결국 아렌트에게서 현실도피에 불과한 것이다. 파리아는 도리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아니 그것을 전면에 내걸고 세계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비로소 그에게 자유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며, '인간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에게 참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 즉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버림받은 이들의 정치가 시작된다. 이 새로이 세계로 오는 자들을 통해 더 다양해진 시좌를 가진 사이-공간이 구성된다.

역량은 부족한데, 욕심은 넘쳐났다. 악덕도 이런 악덕이 없다.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출몰해대는 온갖 유명들의 요구를 감당해 내기가 쉽지 않았다. 강의 시작 직전엔 항상 식은땀이 등 뒤로 흘러내렸다. 수강한 분들께 그저 감사하고 미안할 뿐이다. 도리어 내가 너무 많이 배웠고, 덕분에 향후 연구할 주제들을 참 많이도 얻어간다.

궁리소 만세!



### 고병권의 비마이너

"**옳은 말은  
옳은 말일 뿐이다**"

말의 한계, 특히 '옳은 말'의 한계에 대하여



### 고병권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  
맑스, 니체, 스피노자 등의 철학,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책을 써왔다. 앞으로  
국가의 한계, 자본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몇 년간의  
방랑(?)을 마치고, 인간학을 둘러싼  
전투의 최전선인 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고 있다.

지난 11월 말 '수유너머104'에서 열린 토미야마 이치로 선생의 '조용한' 발표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로 '수유너머104' 회원들이었지만 나처럼 우연의 도움으로 그날 참석했던 사람도 있었다. '조용한' 발표회라고 한 것은 홍보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발표회 자체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날 발표회는 견해를 발표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고민을 나누는 자리에 가까웠다.

통상적인 발표회와 달랐던 것은 그 뿐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본 연구자의 발표인데도 초대와 응답이 보통의 경우와는 반대로 느껴졌다. '수유너머104'가 발표자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발표자가 '수유너머104'를 초대한 것 같다고 할까. 발표자는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를 꺼내놓았고 참석자들은 주인이 나눠준 방석처럼 그 고민을 받아들였다. 검투사도, 논객도 없었다. 생각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소란 대신 생각의 자리를 마련해주려는 그런 발표회였다.

나는 여기서 희한하게도 내 말의 청자가 되는 체험을 했다. 혼잣말을 했다는 뜻이 아니다. 내 입으로 낸 소리를 내 귀로 듣는 것은 화자나 청자의 체험이 아니다. 이런 건 말하기도 듣기도 아니다. 내가 내게 들려줄 말, 내가 내게서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굳이 성대를 울리고 고막의 진동을 감지할 필요가 없다. 생각만 떠올려도 그런 것은 이루어진다.

“세상에는 여전히  
 옳은 말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세상에  
 옳은 말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들이 정처 없이  
 여기저기 흘러 다니고  
 있을 뿐이다.”

그날 내가 내 말의 청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와는 다른 것이다. 나는 타인이 내게 건네는 말로서 내 말을 들었다. 토미야마 선생은 내가 『철학자와 하녀』에 썼던 말을 소리 내어 읽었다. “옳은 말은 그저 옳은 말일 뿐이다.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 안에서 다시 체험되어야 한다. 내가 내 식으로 체험하지 않는 말이란 한낱 떠다니는 정보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여전히 옳은 말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세상에 옳은 말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들이 정처 없이 여기저기 흘러 다니고 있을 뿐이다.”

전체 발표 맥락과는 상관없이, 아니 맥락을 따라가면서도 곁길로 걷는 듯, 나는 내 말이 남의 말처럼 머릿속에 들어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했다. “옳은 말은 그저 옳은 말일 뿐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일들이 연이어 떠올랐다. 그 일들은 정작 내가 그 문장을 썼을 때는 떠올리지 못했던, 그러나 당시 내게 큰 영향을 미친 것들이었다. 내 말을 타자에게서 다시 건네받는 순간 나는 명백히 그 말의 화자가 아니라 청자로 반응했다.

서구어로 ‘논평’을 ‘코멘트’(comment)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 ‘코멘툼’(commentum)에서 왔다고 한다. ‘발명된 것’, ‘고안된 것’이라는 뜻이다. 동사형으로 쓰면 ‘발명하다’, ‘고안하다’ 쯤 될 것이다. 중세의 신학자들은 글을 읽고 떠올린 것이라는 점에서 ‘코멘툼’을 ‘해석’(interpretation) 내지 ‘주석’(annotation)의 의미로 취했다.

그런데 의미를 따라 분절해보면 ‘논평’이라는 말은 ‘함께’(com-)와 ‘생각하다’(mentis)는 말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논평한다’는 것은 ‘함께 생각한다’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지적이고 평가하기’가 아니라 ‘함께 생각하기’로 말이다(흥미롭게도 내가 나중에 구해 읽은 토미야마 선생의 발표문 제목은 ‘함께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그날 발표는 이 말 그대로였다. 나는 논평을 받았던 것이다.

“옳은 말은 옳은 말일 뿐이다.” 애초에 이 말은 내가 청자 내지 독자의 태도와 관련해서 한 말이었다.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을 들었다고 해도 그 말을 내 것으로 소리 내어 보지 않는 한에서 그것은 그저 옳은 말, 그저 좋은 말에 그칠 것이라는 취지였다. 나는 저자이자 화자로서 청자이자 독자인 사람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한계를 지적했던 것이다.

그러나 토미야마 선생한테 그 말을 건네 들었을 때(그 말은 이제 그의

것이기도 한데), 그것이 불러일으킨 과거의 기억들은 완전히 다른 것들이었다. 나는 ‘옳은 말이 옳은 말일 뿐’인 상황을 몇 번 겪었는데, 이 체험들은 한결같이 청자가 아니라 화자로서 느낀 한계였다.

첫 번째의 기억은 2008년 현장인문학에 참여할 때이다. 당시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것은 ‘빵’이 아니라 ‘장미’라는 말에 공명했다. 재소자, 성매매여성, 장애인, 노숙인, 빈민 등 사회에서 주변화되거나 추방된 사람들이 사회에 재진입하려 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활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자격증과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현장 활동가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빵’만 던지는 것은 한가한 일이라고 했다. 자활을 위해서는 ‘돈’ 이전에 ‘내면의 힘’이 필요하며, 자기의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공론화할 수 있는 힘, 특히 ‘말’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다(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치적 존재로 규정할 때 언급했던 ‘언어’ 말이다).

그런데 현장인문학에 참여한 지 1년 쯤 되었을 때, 나는 내가 한가하게 ‘말’만 던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산타가 선물을 던지듯, 오지(奧地)에 전기를 공급하는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문 지식을 전하고 있었다. 한계는 금방 드러났다. 이런 공부야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누구보다 강사인 나 자신이 그것을 확신할 수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대학에서의 수업과 다를 바 없는 지식의 전달이 어떤 신비한 힘을 낸다는 것일까.

그런 상황에서도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강사가 전하고자 하는 앎이 자기 삶의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가를 찾으려고 애썼다. ‘예전에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일과 관계된 것인가.’ 아니면 ‘내게 이런 고민이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질문은 곧잘 인생 상담으로 변해곤 했다.

앎이 삶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해 겨울 나는 그런 제목의 글을 썼다. 나는 앎을 통한 삶의 구원을 믿을 수 없었다. 누구보다 인문학자 자신에게 그랬다. 가난한 사람들은 고사하고 인문학 자신은 그런 앎에서 구원을 얻었는가. 그때 나는 ‘옳은 말은 그저 옳은 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아무리 정확하고 올바른 말이라도 해도 그것은 유통되는 정보 이상이 아니었다. 옳은 말들은 기어가 빠져 공회전하는 엔진처럼 헛돌았다.

두 번째 기억은 2010년 노동장애인야학에서의 철학 수업이다. 2008년부터 특강 형식의 강좌로 이어지다가 처음으로 철학이 정규 수업으로 편성되었다. 첫 학기에 나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문과 제1부를 함께 읽어나갔다.

첫 시간부터 너무 힘들었다. 니체라는 철학자의 생애만을 간략히 소개했는데, 채 5분도 되지 않아 몇 사람은 잠이 들었고 몇 사람은 전화기를 만지작거렸다. 한동안 수업 시간에 말한 것은 나뿐이었고, 내 말을 또렷하게 들은 것도 나뿐이었다. 말은 내 입에서 허공을 거쳐 내 귀로 들어오는 자폐적 회로에 갇혔다. 이때 느꼈다. 말은 말일 뿐이라고.

다행히 어떤 한 순간이 찾아들면서 답답한 상황이 타개되었다. 기묘하게도 그것은 니체가 ‘신체’를 강조하던 지점에서 일어났다. ‘신체 경멸자들’, ‘내 안에서 어슬렁거리는 짐승들’. 실제로 니체가 말하려 했던 바와는 조금 달랐지만, 그 표현에 학생들의 신체가 흥분했다. 급작스레 경직된 근육, 비명처럼 들리는 외침, 들썩이는 혈체, 허공을 휘젓는 손. 나의 해설과는 다른 맥락에서 일어난 반응이었다. 내 말에서 그런 신체의 반응을 예측하거나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내

무엇보다  
자기 말이 자기 삶에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때에야 옳은 말은  
비로소 옳은 말이 된다.

말 자체에는 그런 신체 반응을 호소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았다. 말에서 예측할 수 없고 말로서 통제할 수 없는 신체의 움직임. 그것은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신체의 자동 반응이었다.

신체, 그것은 이때 내가 겪은 말의 한계였다. 신체라고 했지만 그것은 정서[정동](affect)에 가까웠다. 어떤 긴장, 흥분, 응축 같은 것 말이다. 노들에서의 수업을 통해 이런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겁이 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응축이 일어나고 그것이 신체적으로 나타난다. 입술이 떨리고 어깨 근육이 뭉치고 손에 땀이 나는 등의 반응들. 장애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게 너무 강해서 몸이 크게 뒤틀리기도 한다.

말보다 먼저 일어나고, 말해주지 않아도, 의식하지 못했어도, 먼저 알아채는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은 말을 하기 전에 입술을 떨리게 하고 구멍들로 땀을 밀어낸다. 말하기 전에 그것은 말의 매질이 되는 공기를 먼저 읽어낸다.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말할 때만이 아니라 말을 들을 때도 그렇다. 아직 화자의 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청자의 신체는 그 말을 미리 들은 듯 긴장한다. 말 이전의 망설임과 긴장의 영역이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이 통제할 수도 없는 신체의 영역, 정서의 영역이 있다. 이것이 말의 한계에 대한 나의 두 번째 경험이다.

세 번째 기억은 2009년의 '연구공간 수유너머'다. 이것은 '말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한계로 밀려난 말'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그 해에 십 년을 이어오던 공동체가 깨졌다. 거친 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말들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 언제부터가 '옳은 말'의 전제적 지배가 지속되었다. 언제부터가 틀린 말들, 실없는 말들, 의미 없는 말들, 우스꽝스러운 말들이 변방으로 밀려나가거나 사라졌다. 전체 모임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수는 급속히 줄었다. 나를 포함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크게 오래 말했다. 항상 '옳은 말', '올바른 말'만 하는 사람들 말이다.

옳은 말이 그토록 많이 넘쳐났음에도 우리 공동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위험을 감지할수록 옳은 말들은 더 많아졌다. 그리고 말은 갈수록 법을 닮아갔다. 그리고 올바른(right)과 권리(right)를 따지고 다투는 말이 횡행할수록 공동체는 국가를 닮아갔다.

정치사상가들이 지적하듯 법이란 주권의 말이다. 공동체가 국가를 닮아가는 것과 나란히 '옳은 말'은 '올법'을 닮아간다. 나는 여기서 '옳은

말'의 한계를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나는 저항의 언어로 외쳐질 때조차 '올바른 말', '권리의 말'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말의 한계, 특히 옳은 말의 한계에 관한 세 가지 기억을 따로 떠올렸지만 이것들은 사실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주권의 언어로서 옳은 말이 지배하면 신체가 얼어붙는다. 실없는 말들, 어이 없는 말들, 틀린 말들의 중대한 기능이 여기에 있었다. 그 말들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옳은 말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경직성이나 지루함)를 제어한다. 누군가의 실없는 말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떨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꺼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말들, 아니 말이 되지 못한 소음들, 몸짓들은 토론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했을 때에도 그 결론이 지나치게 깔끔해지지 않도록 흥터를 남기거나 색깔을 입히고, 최소한 낙서라도 한다.

옳은 말을 제어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옳은 말이 그저 옳은 말에 그칠 때 폭력이 등장할 수 있다. 폭력은 옳은 말을 탄압할 때도 동원되지만, 내가 겪은 폭력적인 상황은 대체로 옳은 말을 하는 쪽에서 만들어졌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말이 아무런 변화도 야기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강제와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말에 힘을 싣는다. 말 자체가 힘을 갖지 않기에 힘의 강제로 말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처벌의 위협, 특히 추방의 위협이 올바른 말 곁에 붙었다면 폭력적 상황은 이미 시작된다.

물론 반대의 길도 있다. 옳은 말이 '그저' 옳은 말인 상태를 넘어서는 길. 그러려면 옳은 말은 옳지 않은



말들, 실없는 말들, 우스꽝스러운 말들과 우정 어린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말을 올바른 것으로 다듬기 전에 말의 매질인 공기, 말이 나오는 환경을 잘 가꾸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이 삶에 밀착하고 삶을 유혹할 정도의 매력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자기 말이 자기 삶에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때에야 옳은 말은 비로소 옳은 말이 된다.

형님 한 말씀

2017년을 보내며... 김명환 소들야랑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흘러  
가고 우리도 한 그 세월 만큼 늙어 가고 있겠지요. 올 한해는 우리들과 함  
께 활동을 했던 동지가 우리들의 결을 영천히 떠나는 마음이 아프고 슬픈 상처  
의 아픔도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 동지는 지금쯤 저 세상에서 편안히 잘지  
내고 있겠지요. 가난도, 차별도, 아픔도, 장애도, 병도 없는 세상에서 편안히 잘  
지내고 있겠지요. 아직 가지도 우리들과 함께 할 일들이 많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그 동지도 우리들과 함께 투쟁들을 못 하지만 언제나 우리들의  
투쟁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늘 함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  
리들은 그 힘을 받고 열심히 연대를 하면서 투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지가 못다한 몫  
까지 살아 있는 우리들이 해야 겠지요. 그러면 그 동지도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동지 못까지 더 열심히 투쟁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화  
분 농성장은 5년 동안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장애인등극제 폐지, 부양위부제 폐지, 장애인 수  
용시설 정책 폐지를 외치면서 무기한 농성을 하다가 2017년 9월 5일에 농성을 풀고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5년 동안의  
우리들의 끈기로 좋은 성과 조건으로 이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투쟁을 반드시 투쟁으로써 승리 하  
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또 하나의 투쟁의 농성장도 생겼습니다. 2017년 11월 22일  
에 충무로 장애인 고용공연을 잠깐 하고 농성장에 들어 갔습니다. ① 중증 장애인 1만개 일자  
를 만들어라. ② 중증 장애인 최저임금 소득 보장 조항 폐지하라. ③ 장애인 고용공단 혁신하라.  
라는 3가지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도 직업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당당히 차별받  
지 않고 그 동안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 자차들의 삶을 살아 갔으면 좋겠습  
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가 당연히 보장을 해주어야 마땅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것  
들을 국가가 당연히 이행 해야 하는데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기위  
하여, 인간답게 살기위해서 차별에 저항 하면서 충무로 장애인 고용공연을 잠  
하여 무기한 농성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 농성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들은 이 농성을 포기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인권과 삶의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에 거주하는 수많은 이용인들이 하루  
빨리 탈시설을 하여 이 사회에 나와서 자차롭게 우리들과 함께 살았음 좋말로  
좋겠습니다. 그런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데서 나와서 그동안 빼앗긴 자차들의 소중  
한 인권들을 찾고 인간답게, 자차롭게 우리들과 함께 살았음 좋겠습니다. 중증

장애인도 자기의 소중한 인권이 있는 인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권을 박탈  
당하면서 감옥 같은 곳인 시설에서 탈시설을 해야 할 겁니다. 중증 장애인  
도 당당히 이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고 싶고 꼭 그렇게 살고  
싶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중증 장애들을 바라보는시각을 이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동정과 시련이 아닌 동등한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써 보는 것 말입니다.  
아직은 많이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변화가 오기를 바라 봅니다.  
우리 자신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하겠지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요.

이젠 서서히 2017년도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가는세모입니다.  
2017년도 원들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분들, 성소수자분들, 그외 투쟁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2018년 새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두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후신: 서두에 쓴 동지는 박종필 동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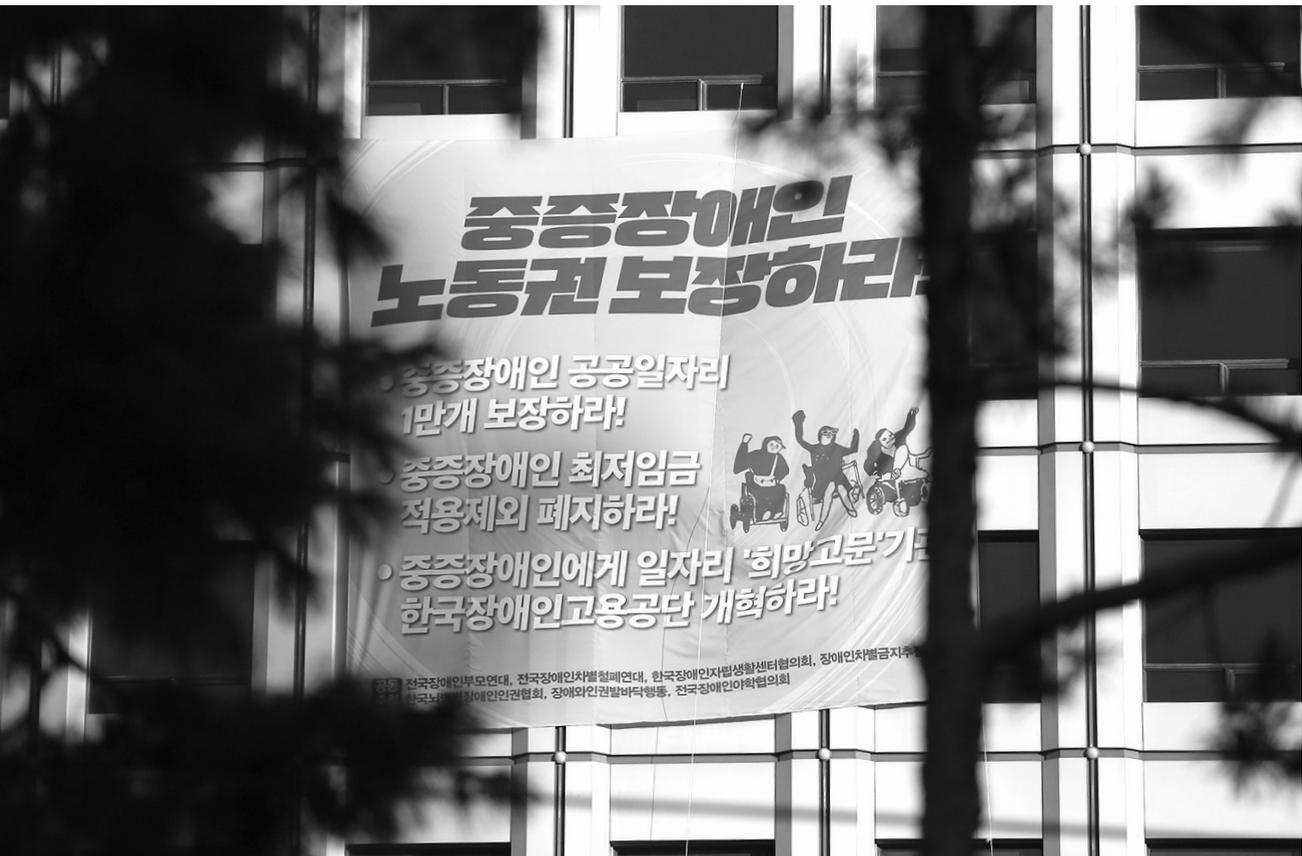
장판 핫이슈

# '차별과 시혜'를 넘어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위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서울지사 농성 30여일을 바라보며

박철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전국장



2017년이 다 가고 서늘한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11월 21일, 중증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님 백여 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현수막을 사무실 곳곳에 붙이고, 강렬한 바람과 의지를 담은 종이 수백 장을 어딘가 들쭉날쭉하지만 고용공단 사무실 벽을 뒤덮을 듯 붙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왔지만 차별만이 가득한 이 사회에서 참았던 말을 구호로 토해내기 시작했다.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하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하라!”**

**“희망고문 전문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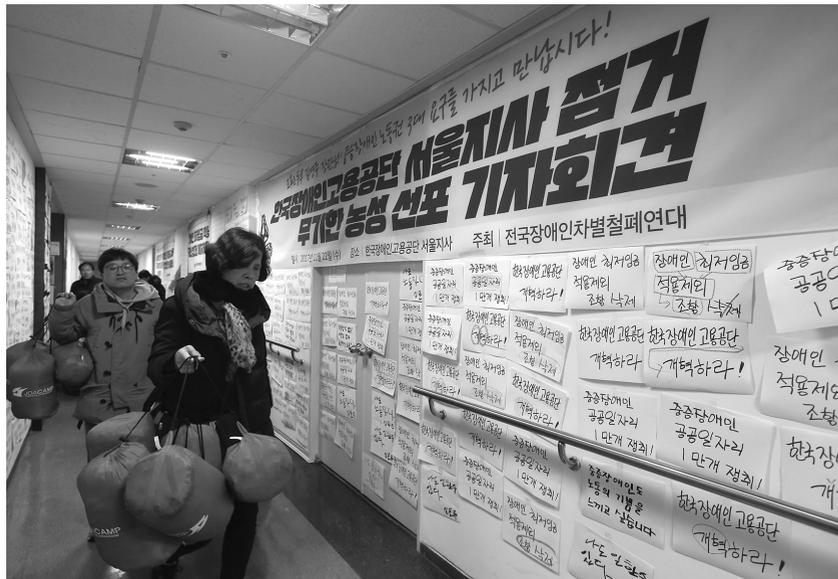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수용시설 폐지의 목소리를 내걸었던 광화문 지하 1842일의 농성이 끝난 지 3개월 후, 장애인 운동은 다시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한 달 넘게 농성하고 있다.

누군가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도대체 농성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농성이나? 결국 장애인 당신들만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여전히 장애인은 차별 받고 있기에 또 투쟁하는 것이다. 여전히 장애인 인권은 배부른 건 고사하고 물조차 사 먹기 어려울 정도로 일하며 살기 힘든 환경인데 왜 우리의 싸움을 멈춰야 하느냐?”

전체 인구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61%에 해당하나 장애인의 고용률은 여기서 반 토막 난 36.1%에 불과하다. 3분의 2 가량의 장애인이 고용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취업을 포기해서 열악한 빈곤 상황에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언급을 하지 않는 실

정이다.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한 이상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다. 중증장애인인권활동, 동료상담, 피플퍼스트, 권익옹호 등 장애인이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왔지만 노동으로 인정받지 않았던 활동들을 공공일자리로 만들 수 있다.

최저임금은 누구나 일한 만큼 최소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이 정도 급여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최대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정신장애나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에서 적용 제외해도 된다는 조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장애인은 아무리 일을 해도 그 가이



드라인을 보장받을 수 없다. 2016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 분포 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28.1%로 4명 중 1명이 100만원 이하를 받고 살아간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되면 그나마 있는 장애인 고용률은 더 줄어 들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장애인의 노동을 비장애인의 노동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차별적인 입장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처럼 벌금으로 통치는 것 이상의 처벌을 해야 하는 거지, 그것이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 이하 수준을 넘어 월 10만원 정도의 임금을 줘도 된다는 식으로 정당화 돼서는 안 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UN장애인권리위원회

도 한국 정부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는 문제점이 있으니 시정하라고 얘기한 바 있다. 정부는 장애인이 자립생활 할 수 없는 현 장애인 노동권 상황을 그대로 이어가려 하지 말고, 장애인도 함께 이 사회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제7조 조항을 당장 삭제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고용 조항도 장애인의 고용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기준 미달 인원 1인당 최소 매달 757,000원의 고용분담금만 내고 통치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용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다. 본래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일해야 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는 사업장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모순에 빠진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이 제대로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동권 투쟁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서 비장애인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장애인의 노동은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 보면 장애인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노동은 참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많다. 동료 상담, 권익 옹호, 인권 교육, 피플퍼스트 등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선 상상할 수 없는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이 노동으로 인정받고 직업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차별 없는 세상이 가능할 것이다.

한 달이 지나고, 외벽에 있는 현수막은 강제철거 당하고, 고용공단이나 건물 경비 업체는 계속해서 퇴거할 것을, 조용할 것을 강요하지만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외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농성장 바로 앞에서 세계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으며, 농성장에서 열리는 추모제, 토론회, 워크숍 그리고 매일 진행되는 문화제를 통해 중증장애인 노동권 농성장은 사람이 끊일 날이 없다. 전태일재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민주노총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방문하여 지지와 연대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기에 중증장애인 농성장은 중증장애인 노동권이 제대로 확보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장애인 운동은 항상 넘실대는 파도에 맞서 나갔던 싸움이었다. 장애인도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막았고, 장애인도 자립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한 활동 보조를 위해 한강대교를 기어갔고,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고 가족의 유무에 따라 복지를 주겠다는 낙인에 맞서 5년 넘게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기도 했다. 모든 파도가 쉬운 과정이 아니었고 그 때마다 불멘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장애인이 스스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긴 시간 싸웠던 투쟁으로 곳곳에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가 생겨나고 있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도 폐지하기 위한 협의회가 만들어졌고, 장애인은 시골로 가는 것이 복지라는 인식도 금을 내기 시작했다. 즉,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직접 외쳐대며 싸운 끝에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도 사회적 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세상까지 향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곧 인권이었고, 그 인권의 목소리가 마침내 사람을 위한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갔다. 노동권 투쟁도 그 역사의 한 갈피일 것이다. 장애인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자!

## 소리 없는 이들의 삶은 계속된다

2017 홈리스추모제,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가을

홈리스야학 활동가

애동지라 하였다. 예부터 동지가 동짓달 초순에 드는 애동지에는 어린 이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하여 팔죽 대신 팔 시루떡을 해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역 광장에서는 동지팔죽 나눔이 진행되었다. 가장 밤이 길고 추운 동짓날이자, 2017 홈리스추모제가 진행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홈리스추모제는 매년 동짓날, 거리, 쪽방, 시설 등지에서 돌아간 홈리스들의 넋을 위로하고 홈리스의 복지 및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자리이다. 삶의 흔적들은 산산이 흩어져 소리조차 희미하지만, 여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삶은 처절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죽은 자와 산 자가 모여, 세상에 고하는 날이다.

###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60~70년대 주요 역사와 인력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쪽방촌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철거되어 왔다. 현재 서울시에는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동자동, 영등포동 등지에 쪽방촌이 밀집되어 있으며, 거리 홈리스에게는 탈노숙을 위한 주요 거주지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요 도심에 위치한 쪽방촌은 도시개발 및 건물주의 용도변경 등에 의해 끊임없이 멸실되고 있으며, 쪽방촌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삶은 처절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죽은 자와 산 자가 모여,  
세상에 고하는 날이다.

거리로, 인근 쪽방촌으로 퇴거되고 있다.

또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쪽방촌 주변은 많은 거리 홈리스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시내 거리 홈리스 밀집지역에서는 거리 홈리스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몇몇 행위들이 범 죄화되고 있다. 특히 도심이 개발되고 상업화되면서, 주요 공공장소에서는 거리 홈리스를 내쫓기 위한 경비원 등에 의한 퇴거가 증가하고 있으며, 거리 노숙지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등 민자역사 사업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역사들은 홈리스에 대한 퇴거조치를 자행하고 있다. 결국 쪽방의 멸실로 갈 곳이 없는 홈리스들이 공공장소에서도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무연고 사망자 중 홈리스의 비율은 45%에 이르고(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중 홈리스 사망자현황, 나눔과나눔) 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기초보장제도의 장제급여는 무연고사망자를 장례가 아닌 사체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적절한 장례도 치를 수가 없는 현실이다. 이에 근래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영장제 조례안」을 발의 하였으나, 지원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였고, 지원 수준을 40만 원선으로 하여 실질적인 장례 지원을 보장하지 못한 오타투성이의 조례안이었다.

그래도 또 외친다.  
 얼지 마! 죽지 마!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면  
 그 누구의 삶도  
 온전할 수 없으니.  
 올 해 홈리스추모제에선  
 더욱 함께 외치길 바란다.

이에 2017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주간사업과 함께 '주거', '추모', '인권'으로 나누어 홈리스의 인권보장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고,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대책' 토론회 및 퍼포먼스, 거리 홈리스 100명을 대상으로 '홈리스 인권 실태조사' 및 시장면담 요청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서울시 공영장례조례(안) 발의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례안을 상정보류 시켰다.

**생애 모든 순간은**

무너진 건물 더미 밑에는 누군가의 삶이 있다. 찬바람 행한 거리에도 누군가의 추억이 있다. 그것이 그의 죽음이든, 그가 남긴 글이든, 삶의 궤적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얼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외쳤지만, 삶의 궤적들은 여기저기 모여, 결국 만나는 곳은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이기도 하다. 비통하다. 그래도 또 외친다. 얼지 마! 죽지 마!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면 그 누구의 삶도 온전할 수 없으니. 올 해 홈리스추모제에선 더욱 함께 외치길 바란다.



# 노란들판의 겨울맞이!)

#벌써일년

진실로

노란들판 디자인2팀 디자이너.  
 트램폴린 위에서 뛰는  
 점핑 운동에 빠져있어요.  
 저 깊숙한 곳 어딘가  
 흥이 잠재되어 있음,  
 강아지 산책과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12월입니다. 노란들판은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정신이 없어요.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고, 한파 특보로 모두 월동준비를 하고 있어요. 두툼한 겨울옷과 목도리를 장만하고요. 가슴기도 구입했고 담요를 두르고 다니며 얼마 전에 구입 한 오븐에 꿀고구마를 구워 매일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

점심시간의 어느 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트리를 꺼내어 장식을 달고 캐럴도 들으며 예쁘게 꾸몄습니다. 완성된 트리를 보니 설레고 진짜 겨울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사진을 찍다가 공장사람들의 점심시간 풍경도 담아봤어요. 식사당번은 설거지를 하고, 산책을 나가는 사람도 있고,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웹툰도 보고, 낮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옹기종기 모여 수도도 떨고, 기타교실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인 모인 노란들판은 어느 때와 다른 12월의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어느새 입사한 지도 1년이 되어가네요.. 1년을 되돌아보면, 눈코 뜰 새 없이 무지 바빴던 한 해였고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 뭔지 모를 아쉬움과 쓸쓸함도 들지만 한편으론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지나감에 감사함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남은 마무리를 잘 해야겠어요. 추운 겨울철 노란들판 모두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몸-도 마음-도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내년에는 희망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해요..



# 어쩌다 보니 10년

노란들판 10년 일꾼  
공대식, 이범민, 조수안 님 인터뷰

디자인 1팀 팀장  
노란들판 10년 일꾼 : 조수안



디자인 1팀  
노란들판 10년 일꾼 : 공대식



작업팀  
노란들판 10년 일꾼 : 이범민



## 김상희

노들야학 학생으로 시작해서 노란들판 디자이너까지 두루두루 활동과 경험을 쌓아 지금은 노들센터로 컴백! 가끔 웃기는 웹자보를 만드는 것이 취미이며 IT사업 진행 시 0처리 결산에 집착하기도 하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은 김상이라고 합니다~ ㅎㅎ

### 노란들판에서 어쩌다^^::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대식** 노란들판에서 처음으로 한 인턴 연수에 참여하게 되면서 노란들판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범민** 잡자 교육 받고 인턴으로 들어왔어요.

**수안** 광진센터에서 일하던 친구 소개로 인턴모집 알게 되어 뽑혔다가 일하게 되었음.

### 첫 급여 액수와 처음 지출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식** 액수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내 생에서 내가 내 힘으로 처음 번 돈이었습니다. 처음 지출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부모님 속옷을 사드렸습니다. ^^;;

**범민** 74.

**수안** 74만원으로 시작해서 당연히 부모님 속옷 선물 드렸다.

### 노란들판에서 일하며 좋았던 점 또는 힘들었던 점 또는 기억에 남는 사건을 말해 주세요!!

**대식** 사실 그동안 내가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오게 되면서 나도 어딘가에는 필요한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범민** 어깨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수안** 일하다가 어려운 점을 동료와 함께 풀어나가면서 해결하여 이게 고마운 점으로 기억 남는다.

### 지난 10년 동안 가장 까다로운 고객은?

(디자인을 10번 수정시켰다!! 약~~ 배송 보냈는데 출력에 깔끔하게 안 되었다고 다시 반송보냈다!!! 오~~~ 노~~~~ 등등 이와 같은 일들)

**대식** 질문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는 분들이 더 까다로우십니다. ^^;; 우리와 잘 알고 계셔서 그러신지 더 편한 마음으로 더 많은 수정, 더 많은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민** 기계가 색깔이 안 나올 때.

**수안** 초창기 때에 한국@@@에서 시안 4개를 새롭게 5번 보냈다. 총 20개였다는 사건. 다시 이런 일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들게 함.

### 노란들판에서 어쩌다 10년이나 일하게 되었습니까?

**대식** 다들 좋으신 분들이라 보니 같이 일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서로를 배려하려는 노력,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범민** 어쩌다 보니깐.

**수안** 하다 보니 벌써 10년 되었다 세월 빠르다 새삼 느끼게 함.

### 노란들판에서 얼마나 더 어떻게 일하고 싶습니까?

**대식** 여기서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일했던 좋은 추억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습니다.

**범민** 10년.

**수안** 할 때까지 최선 다하고 싶다.

### 근무 10년을 맞아 하고 싶은 말 또는 바라는 점을 말해 주세요!!!

**대식** 노란들판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좋은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민** 앞으로 더 많은 벽을 허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가자.

**수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마음 되어 공존하자.

## 노들아 안녕

### 날개

김영미

1972년 10월16일생이고요. (46)  
고향은 너무 어려서 인강원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미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설 밖으로 나와서 여러 사람  
들 앞에서 글을 쓸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저는 어려서 아주 어린 시절 아기 때부터 인  
강원이란 보육원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 왔습니  
다. 저는 제가 사는 데가 전부인 줄로 알고 몇 십  
년을 살아 왔어요. 살면서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  
한테 많은 상처도 받았고 도망도 치고 싶었지만  
은 그럴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다른 시설로 옮겨가야 하  
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몸도 맘  
도 망가져 갔어요.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나고 그  
냥 멍하니 지내는 날이 날로 늘어만 갔어요. 눈물  
로 밤을 지새우는 날도 많았구요. 모든 것을 후회  
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을.  
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싫고 밉고 모든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립을 해서 여러 선

생님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도 많고 여기 저기 여  
행도 가고 구경도 가고 영화도 보고 너무도 좋아  
요.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그리 힘든 시간을 보  
내야 했는지, 조금 더 일찍 나왔더라면 하는 생각  
을 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놀러 다니는 것,  
마음껏 다니고 하루도 집에서 쉬는 날이 없을 정  
도입니다. 너무도 바빠요. 먹고 싶은 것도 해 먹  
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  
나고,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저 혼자만 많은 행복을 받고 있으니  
아직도 시설에 남아 있는 많은 친구들이 생각납  
니다. 하루 빨리 자립해서 저와 같은 생활을 했으  
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지금 용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마  
련해준 체험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은 주택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노들야학에 입학했어요. 활

동보조 선생님 권유로 다니는데 결석은 하지만  
음악하고 미술을 좋아합니다. 친구들도 너무  
좋고요. 선생님들도 잘해주시구요. 재미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자립하는데 많은 응원과 격려  
를 해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 말씀 드리며 용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선옥 소장님 다시 한번 감  
사 말씀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야학은 열심히! 활  
동가도 열심히! A.A.C 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  
니다.

## 노들아 안녕

### 오랫동안 이 세계를 알아가 보고 싶다

유지영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여기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  
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  
다면, 함께 일해 봅시다!  
2017년 초겨울, 노들장애인야학에 교사로  
자원했다. 그 계기를 말하자면 상당한 시간을 거  
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다. 특수 교육을 향한 관심  
은 대학서 배운 '특수교육학개론'이라는, 장애 학

생을 가르치는 방법론을 다루는 수업에서 시작  
했다. 지금은 다른 업계에 몸을 담고 있지만 당시  
한참 동안 열렬히 특수교육에 몰두했던 기억이  
있다. 직접 특수학급 수업 참관도 해보고 비장애  
인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살  
아가야 할 장애인 학생들에 더 눈길이 갔던 것도  
사실이다.  
노들장애인야학을 알게 된 건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를 통해서였다. 비마이너 후원 회원이었

던 나는 비마이너의 독자 인터뷰에 응하며 차츰  
노들야학을 알아갔다. 장애운동에 관심이 조금이  
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박경석 선생  
님이 노들장애인이야학의 교장이라는 것도 그때 알  
았다. 잠시 잦아든 불씨를 다시 활활 키우는 데에  
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노들야학 교사 대표인 김  
진수 선생님 앞에 앉아 신입교사 지원서를 쓰고  
있었다. 직장과 야학 간 상당히 먼 거리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기지 못했다.

위에 인용한 문장은 노들야학에서 교사가 되  
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신입 교사 세미  
나' 자료집 맨 앞에 적힌 문장이다. 비장애인으로  
서 그저 장애와 장애학에 단순히 조금의 '관심'이  
있다는 이유 말고도 노들야학에 되도록 오래 머  
물기 위해 내게는 좀 더 제대로 된 (정교한) 이유  
가 필요해 보였다.

사실 맨 처음에는 저 문장을 받고 막막했다.  
'비장애인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했을 때 '나의  
해방'이란 대체 뭘까?' 그저 선한 의지만이 아닌 '타  
인의 해방과 나의 해방을 연결시키려면 내가  
여기서 무얼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물음들이 머  
릿속을 어지럽게 섞어놓았다. 며칠 전 그저 순수  
하게 '하고 싶다'는 열망만으로 텅텅을 때와는 달  
리 복잡한 질문으로 엉켰다. 다른 야학 교사들이  
하는 수업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수업을 하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잘 되지 않았다. 무엇  
보다 언어장애를 가진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  
대로 알아듣기도 힘들어 과연 내가 이 세계에 제  
대로 접속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던 것 같다. 장애인들만  
있던 노들야학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  
순식간에 이 길에 장애인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  
이 무척 낯설었다.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비장애인의 세상,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세상이 내게 조금 더 불편  
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내가 언  
젠가는 제대로 장애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넓은 세  
계에 제대로 접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아  
마 결국 그런 것이 '나의 해방'이지 않을까? 나를  
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 글은 노들야학을 너무도 좋아하는 내가  
야학에 던지는 일종의 '출사표'다. 좋은 교사가  
될지 실은 아직도 자신이 없다. 그래도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하고 싶다.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씩 디디며 오랫동안 이 세계를 알아가 보  
고 싶다. 그게 '꼬꼬마' 신입 교사로서 노들을 안  
지 이제 몇 달 채 안 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  
의 전부다.

노들아 안녕

## 드디어 페이스 친구가 되었다

윤민진



2011년 4월에 청주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받았다. 강사가 했던 말이 지금까지도 기  
억에 남는다. “저는 disabled person이라는 말  
을 싫어해요. differently abled person(다르게  
기능이 발달된 사람)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내가 보조를 했던 첫 번째 이용자는 근육장  
애를 가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다. 그는 무  
릎을 거의 굽히지 못했고 낮은 문턱에 걸려서도  
충격이 심하게 넘어졌다. 모두 내 잘못처럼 느껴  
졌고 그 후로 언제든 부축할 수 있도록 긴장하며  
걸어 다녔다. 통합학교에 그는 비장애인과 같은  
반에서 공부했다. 수영장 안에서는 넘어져도 충  
격을 받지 않으므로 얇은 물에서 걱정 없이 운동  
할 수 있었다. 나중에 이 친구가 중학생이 되었는  
데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첫 번째 이용자 말고 남는 시간에 내가 보조  
했던 이용자가 한명 더 있었다. 그녀는 특수학교  
고등과정을 마친 뇌병변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탔  
다. 도서관이나 병원에 동행했다. 그녀는 우울증  
때문에 외출하지 않는 날이 많았다. 승용차로 함  
께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2012년 6월에 나는 환경단체에서 일해보  
라는 제안을 받았다. 친한 형에게 말했더니 한번  
해보라고 했다. 나는 두 명의 장애인 이용자는 어  
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형은 활동보조 일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환경단체 일  
을 시작하며 두 명의 이용자를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나는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다.

2년 동안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나서 다시



활동보조 일을 시작했다. 친구를 통해 서울에 있는 재야 인문학 연구소 선생님의 페이스북을 알게 되었다. 그분이 어느 날 박경석 고장 선생님의 글을 공유하셨다. 새롭게 보조하게 된 이용자는 경석 선생님과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산에서 등산로가 아닌 길로 내려오다가 추락해서 척추가 손상되어 휠체어를 탔다. 그 이용자는 다리의 통증을 덜기 위해 나에게 다리 운동을 부탁하였다. 과외를 하러 일주일에 한두 번 외출하는 것 빼고는 항상 집에 있었다. 경석 선생님과 노들이 생각났다.

2015년 3월에 위에서 말한 재야 인문학 연구소에서 요가를 시작했다. 김유미 선생님을 거기서 만났다. 얼마 후 급식후원주점에 오게 되었다. 그날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밤늦게까지 나누었다. 물티슈 한 상자까지 챙겨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2017년 6월 10일 급식항쟁 날에 충무아트센터에서 연극을 보느라 쿨레칸 공연을 놓치고 말았다. 노들 분들이 고생해주시는 덕분에 이번

에도 좋은 시간을 보냈다. 박종필 감독님 추모 영화제가 끝나고 우연히 참석하게 된 비마이너 분들 술자리에서 경석 선생님은 처음 만난 나에게 말씀하셨다. “언제 야학 교사 할 거예요?” 드디어 나는 선생님의 페이스 친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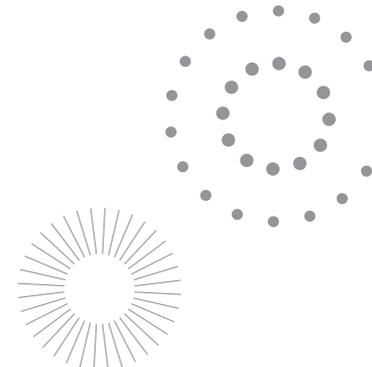


교단 일기

# 우리의 몸을 찾아서

대추

청솔1반의 담임이며 학생들과 2017년 2학기에 과학을 공부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한방진료를 지원하는 장애인독립진료소 실무 담당으로 사람의 몸과 질병에 관심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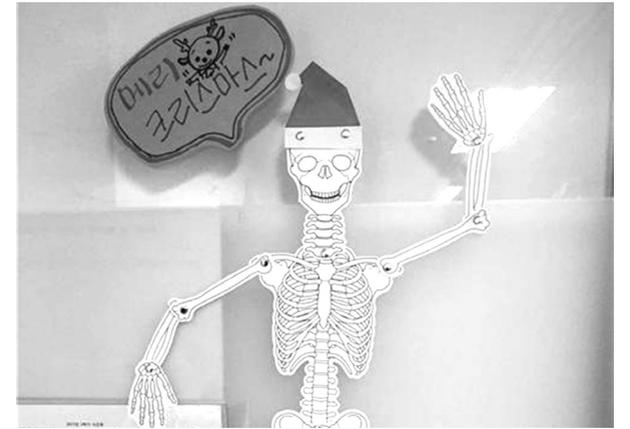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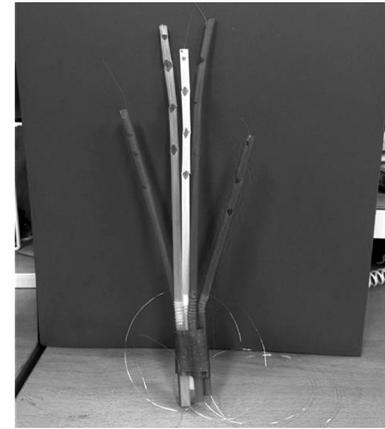


2017년 2학기 청솔 1반 과학 수업담당하게 되었다. 지난 5학기 동안은 청솔 2반과 불수레반을 담당했었다. 항상 같은 과목을 가르친 것도 아니었지만 담당하게 되는 반은 청솔 2반과 불수레반 두 반뿐이었다. 그리고 2017년 2학기 3년 만에 처음으로 청솔 1반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항상 복도에서 오며 가며 인사하고 가끔 이야기 하고 하긴 했지만 수업을 하는 건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됐다. 또한 청솔 2반에서 과학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지루해 하고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수업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청솔 1반의 과학 수업은 더욱 부담이 많이 되는 점이 있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 어떤 수업을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 지구과학을 해야 하나 화학을 해야 하나 어떤 수업을 해야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지루해 하지 않고 과학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을까? 함께 공부한 것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일단은 재미와 실험에 방점을 두고 한 학기를 진행하자! 고 결론을 내게 되었다.

그렇게 첫 번째는 영화 <플러버>를 보고 함께 유행하는 슬라임을 만드는 것으로 했다. 영화는 그럭저럭 잘 보았다. 하지만 슬라임 만들기는 첫 번째 수업에 대박 실패로 끝이 났다. 슬라임의 주재료는 물풀과 물 그리고 렌즈 세척액이다. 이것



들을 순서에 맞게 잘 혼합하면 가만히 있을 때는 주르륵 흐르는 액체 같고 힘을 주면 단단해지는 슬라임이 된다. 그 중에서도 물풀의 성분에 따라 슬라임의 성공 여부가 좌우 되는데 이 물풀을 잘못 사서 첫 번째 실험은 망조의 길에 들어섰다. 하지만 과학 실험의 중요점은 바로 실패를 이겨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른 성분의 물풀을 준비해 슬라임을 다시 만들었고 결국에 성공했다.

그리고 다음 수업은 인간의 몸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했다. 먼저 사람의 뼈 종이모형을 맞춰 가며 해골 전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고 각자 뼈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보며 해골 모형을 만들었다. 이 해골 모형을 학생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했으나 나중에는 자신 몸속의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어 신기했고 이런 뼈 모형을 본 것은 처음이라 기억에 남는다며 이야기를 해주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뼈 구조를 알아보고 뼈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그것을 가장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시험이 발대 손가락이었다. 발대 손가락은 발대가 뼈가 되고 뼈가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은 발대에 뚫는 구멍이 된다. 그리고 발대 끝에 낚시 줄을 묶고 이것을 발대 안으로 집어넣어 반대쪽에서 낚시 줄을 잡아당기면 발대가 구부러지며 정말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나중엔 이 원리를 이용해 1017 선전물도 만들어 선전전에도 활용했다.

그 다음엔 몸 속 장기들의 모형도 만들어 봤다. 우리 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봤다. 폐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횡격막이 중요한 것. 그리고 횡격막의 경련이 딸꾹질인 것 등을 함께 공부했다.

그리고 나서는 신장모형도 함께 만들어 봤다. 우리 몸속 찌꺼기가 신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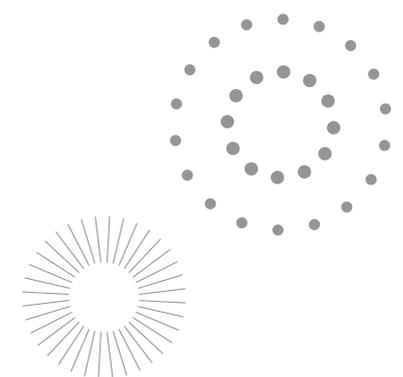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방광에 모여서는 어떻게 되는지 등 모형을 만들어 함께 알아보았다. 모형을 만들어 시험할 때 노란 물이 약 뚜껑으로 쪼로록 떨어지는 것이 꼭 진짜 오줌을 싸는 거 같아 재미있었다는 학생들의 후기도 있었다.

처음에는 실험이 익숙하지 않아서 실패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다. 이렇게 교사가 당황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 시간을 많이 지루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노하우가 생겨 실수가 줄면서 학생들의 참여도 늘어나게 되고 실험하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각 기관들에 대한 이름으로 한글 공부도 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도와 집중도가 굉장히 좋아졌다.

예전에 학생들의 학습태도에 대해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수업을 하면서 교사의 준비도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태도 또한 많이 달라진다는 걸 가슴깊이 또 몸으로 체험하게 되어 나에게도 의미 있

는 시간이었고 지난날의 수업과 앞으로의 수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날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석의 성질과 전통혈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다음 학기 청솔 1반 과학 선생님의 건투를 빈다! 화이팅!



# 중구난방 세미나 뒷담화

비정상 교육철학 세미나 후기

≡ 박준호

노들야학 교사. 야학 수업 잘하고 싶어요. 새해부터 놓고 있습니다. 집이 너무 추워요.



<모임: 진수, 준호, 승천, 혜선 / 2017년 12월 26일 / 대학로 포차100>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9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야학 교사들을 비정상 교육철학 세미나'에 참가하였습니다. 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노들야학의 교사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우선, 노들장애학궁리소에 박정수 선생님이 쓰신 세미나 소개글에 이런 글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그럼에도 그 들판의 학교, 야생의 학교, 야학에서는 제도권 학교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진정한 앓이 일어나고 있으며 교사들은 그 앓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과 함께 끈질기게 기다려야 합니다. 야학의 앓은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돌봄과 투쟁이 어우러진 삶 가운데 사건처럼 일어나는 까닭입니다.”

내가, 우리가 '앓의 원인'이라는 게 될 수 있을까 싶어 곱씹으며 이 말을 다시 보니 그냥 습관처럼 반복했던 수습수업이 부끄러워지면서도 야학에서 학생 분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했던 어떤 집회, 식사, 술자리, 모꼬지와 단합대회. 그 모든 자리들이 항상 고민과 불편함과 긴장을 주었고 그런 삶 속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서로를 더 알아가며 변화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세미나 뒷담화는 지난해 12월 26일 대학로 포차100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팠던 책읽기와 달리 이번 뒷담화는 책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기승전 학생들 이야기로 가는 재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중구난방으로 하였습니다. 세미나를 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더 고민해볼 점, 하고 싶은 것, 학생들의 저축과 생활, 검정고시, 발달장애..등등. 정리는 잘 되지 않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야기하다 맥주를 쏟은 승천 쌤은 교육은 이런 것이 아닐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움푹 파인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잔 같은, 우연한 것이 아닐까. 이날 했던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남깁니다.

**진수** (세미나)기억에 남는 거러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승천** 세상에 하나도 생각이 안나. 심지어 내가 에피쿠로스 발표를 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나. 머리가 나빠져서.

**진수** 책을 쪽 읽었잖아요. 하지 못한 말들이 있거나, 굳이 우리가 내용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준호** 우리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혜선** 불가능. 불가능. 와. 안주가 나왔다. 아이고야... 맛있겠네.

**진수** 책은 기억이 안 나시죠?

**승천** 책을 스캔한 것만 기억이 나요. 자르고 스캔하고.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책을...

**진수** 교육도 이런 것보다 몸으로 하는 게(기억에 나네요). 읽은 거는 기억 안 나는데 몸으로 한 것만.

**혜선** 나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노들바람 보면 중증장애인이 은영이, 상희가 최중증이고 그러면 검시를 본단 말이야. 근데 교사들은 검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지. 검시 봐서 이 사회에서 그걸 떼다고 해서. 검시 문제가 너무 후졌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야학에서 이런 시간에 검시문제풀이를 계속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문제의식이 있고 근데 학생들한테 전달될 때는 웃긴 거잖아. 우린 학교 다 다녔어. 근데 학생들은 그거라도 딸라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면서도 그분들의 욕구를 인정해줘야 하는 거잖아. 검정고시

라도 학력인정 받는 걸 그 속에서 해야 하는데. 그치만 그 말이 맞긴 맞지. 검사가 의미가 없고. 문제들을 백번 푸는 게 의미가 있냐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검사가 되었지. 탈시설한 분들 오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검시에 목매달지 않지. 왜냐면 너무 잘 아니까. 꿈꿀 수 있는 데가 생긴 거잖아. IL 센터라던가. 본인의 무대가 생긴 거니까. 자연스럽게 야학에서 축소된 것들이 드러나고.

<현아 등장>

**현아** 일 끝나고 노들바람 원고 쓰다가...

**승천** 노들바람에 뭘 쓰셨죠?

**현아** 모교지 후기요. 글을 못 넘기고 있어요. 계속 초딩 일기 같이 써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진수** 세미나 얘기하고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원고 제목을 중구난방으로.

<명희, 명희 등장>

**명희** 지식적인 형태야 그렇지. 삶의 형태를 변화하는 게 야학이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전달이면 졸업이 존재했겠죠.

**현아** 저는.. 사실 커리를 제대로 읽은 게 프레지리밖에 없는데. 처음 읽었거든요. 아무튼.. 세미나 하는 걸 원래 좋아하지도 않고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세미나를. 저도 강좌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할 말이 없었는데 경험들을 듣는 게 좋았어요. 인권교육 하면서의 힘든 점, 교사생활의

고민. 그런 것들, 교사란 무엇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혜선** 그래서 야학 학생들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주입식이나. 내가 했던 건 그런 거였는데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자극 받게 하고 그런 걸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건 내가 부족한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야학 학생들이 교육이나 어떤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기초적인 것 그런 걸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문해 교육. 한글을 아는 순간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한글도 절대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나는 그럼 그 방식대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어쨌든 그런 단계를 넘어가는 사람은 넘겨주고. 그럼 또 나눠야 하고.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세미나하면서 정리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하면서 기계적으로 정리하기는 힘든 거고. 그러면서 커리큘럼. 과목도 고민하는데 요이땅 하고 바꾸는 게 맞나. 그런데 지금도 서서히 변해가고 있으니까. 선택수업 인문학수업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고 수학도 하고 싶어 하고 검정고시 욕구도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있고. 우리가 백화점식으로 채워주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틀이 있다면 그런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희** 그건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야학 수업에 대한 실제 고민이. 교사수련회에서 많이 되진 않잖아요. 약간의 배경은 그런 고민들이. 정말 대안적

인 그런 생각을 꿈꾸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고 변화되고 있는데 선택사회 수업도 전체적으로는 아주 최근인 거고 교육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을 할 시간을 가졌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확장된 형태로 가고 책임감 있는 형태로 되지는 않는구나 아쉬운 점이 있어요.

**혜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경남이나 지민이형이나 보면 이분들도 한글을 한다는 걸 보면 누군가는 한글이 느는 사람이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근데 개별로 보면 다른 거지. 일이삼사는 모르지만 살아온 과정 속에서 숫자라는 게 있는데 그분을 관찰해보면 그분 나름대로 터득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강화시켜주거나. 이걸 수학기시험 보려는 것도 아니고 자립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 개념도 있고.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 이분이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지. 그런데 그런 관계가 되려면 교사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고 의사소통에서 그런 게 발견되지 않으면 아주 길게 가져가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목표들도 있어야 하고. 되게 어렵겠다. 나 혼자서 힘들지만 이런 게 쌓여 가면 나 다음에 할 사람이 받아가야 하는데 야학이 이런 게 많이 단절되었었죠. 한 교사가 하면 그 고민은 하다가 말고 또 다른 교사가 하다가 말고.

**진수** 과목이 묶여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학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계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통합적으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을 텐데. 청솔1반의 어떤 특수한 면이 있긴 하지만.

**승천** 학생들이 야학에서 관계를 맺을 때 나랑은 선생님이로 만났기 때문에 나를 때린 사람이 없었구

나, 그 관계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허울이 만드는데. 뭐랄까, 우리는 편안한 관계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존중해줄 이유가 없잖아. 내가 그 삶에 관여를 할 때 나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신들이 귀 기울여 들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내가 교사이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죠. 내가 들은 거에 대해서 사실은 잔소리이고 기분 나쁜 소리인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런 것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관계를 맺는 게 우리에게 편한 방식인 것이고 그래서 경계해야 할 지점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다는 교사와 학생으로서의 관계가 자립생활 이런 걸 돕는 차원에서 이런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걸 선택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수** 저는 그런 걸 잘 활용할 때에는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홍철이 지갑 주운 이야기, 영빈네 고깃집 가는 이야기, 홍철 지민의 영동포 쪽방촌 이야기>

**혜선** 지민이형은 알아. 돈 계산이나. 이런 거에서. 경남은 몰라. 만원과 오천원의 차이를 잘 몰라. 예를 들어 만원 오천원 뭐 가져 갈래요? 하면 지민이형은 바로 만원. 경남이는 예쁜 색 주워. 오백원짜리 보고는 “아이고 작으네, 좋으네”.

**승천** 수학수업에서 확실히 중요한 게 수의 개념? 계산의 문제가 아니고. 크다 작다에 대한 게 중요한 것 같다. 예를 들어 홍철이는 아파트 사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그게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주원이형 이야기>

**승천** 근데 우리가 교육이든 책이든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추상적인 이야기를 사람이랑 엮어서 만들고. 쉽진 않지. 근데 항상 얘기를 하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

**명학** 반복수업이 중요해. 야학에서는.

**명희** 형 많이 반복했잖아.

**명학** 읽고 쓰고 듣고 반복하면서.

**진수** 형 밤마다 라디오 듣고 하시면..

**명학** 나 말고 딴 사람.

<필순, 교장생 등장>

**승천** 나 하고 싶은 교육세미나가 있었는데. 세계에 되게 많은 학교들이 있잖아. 집에 어렸을 때 썸머 힐에 대한 책이 있었어요. 되게 오래된 학교인데. 그 책보고 학교가 이럴 수도 있구나 동경이 되었던 것 같아. 세계에 많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미술전시회 갔는데 바우하우스라고. 일종의 미술학교인데 그 시대 사상과 조류를 이끌었던 학교이거든요. 그 학교의 사람들이 어떤 활동과 생각을 하고 그런 자료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걸 보고서 노들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분야가 다르더라도.

**명희** 다른 세상을 꿈꾸는.

**승천** 네. 그 학교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느 순간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했는데 그런 걸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노들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요.

**필순** 프레이리 책 보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나를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읽히는 책이 되어버렸어요. 맞게 떨어지는 점을 저는 못 찾았어요.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다 재밌게 읽으셨어요? 전체적으로 양이 많은 것 같아서요. 양이 많아 허덕허덕. 이계삼 선생님 세미나 할 때도 양이 좀 있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개인적으로 양이 적었다고 해서 잘 읽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급하게 읽었을 것 같아요.

**준호**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 끝.

이렇게 세미나 뒷담화는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대화가 길어 많은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야기는 두서없이 갔지만 노들야학의 교사들과 2017년의 마지막을 세미나로 장식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정리되지 않은 고민의 흔적들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들장애인야학의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마치며

박성준



저는 노들장애인야학에서 2017.10.16. ~ 11.21. 기간 동안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습을 한다면 노들장애인야학에 가고 싶다는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투쟁판에서 선봉으로 앞장서신 박경석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곳이었으니까요. 장애당사자로서 장애인단체에 일하면서 장애이슈에 크고 작은 투쟁현장에서 보던 박경석 교장선생님을 슈퍼바이저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노들장애인야학 하면 투쟁판의 투사를 키워내는 곳이라 생각하여 공부하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갔던 시기가 10월과 11월이어서 검정고시가 끝난 한참 후라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은 실습 내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전근무를 마치고 노들장애인야학으로 가야 돼서 3시부터 학생들의 교육에 참여하였는데, 그때 수업은 발달장애인분들의 수업이었습니다. 매일 수업이 달랐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은 아프리카댄스 수업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정확한 이름은 아프리카 댄스가 아닌 '만딩



노들장애인이야학은  
성인장애인분들의 공부를  
돕는 곳이었지만,  
사회성을 기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되묻고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동작을 만들어 함께 따라하고, 쟈베의 강렬한 비트에 나도 모르게 실습생의 본분을 까먹고 흥에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사누 선생님이 아프리카 동화(?)를 읊조릴 때는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는 경험도 해보게 됐네요.

#### 본격적인 야학수업

오후 5시부터는 노들장애인이야학의 1교시가 진행됩니다. 어떤 수업에 들어갈지 교사대표 선생님에게 확인 후 각반에 배치되게 됩니다. 제가 실습을 시작한 10월 중순은 '노란들판의 꿈' 행사가 있어 연일 행사준비로 바빴습니다.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노래만큼 좋은세상', 교장선생님에게 배운 '탈시설전선가' 등 행사에서 부를 노래를 함께 연습하였습니다. 정작 토요일 행사에서는 노래를 부르진 않고 들다방의 커피를 판매했습니다.

2교시는 오후 7시반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는데, 저는 주로 발달장애인분들의 문해교육과 수학수업의 학습보조를 하였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의 수업보조를 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수업목표를 잡아야 한다는 것과 또한 이분들이 좀 더 명확히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반복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담당선생님은 느리더라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진행 템포를 조정해주었는데, 장애인야학이라 가능한 수업인 듯 보였습니다.

노들장애인이야학은 성인장애인분들의 공부를 돕는 곳이었지만, 사회성을 기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되묻고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할까

<몸의 시간> 참가 후기

최영은

안녕하세요 저는 노들야학에 다니고 있는 최영은입니다.

연극공연을 하며. 내가 학창시절 때 학예회 연극할 때와 많이 달랐다.

학예회 때 했던 연극은 대사를 익히고, 직접 대사 하는 거 녹음을 하거나, 선생님이 대신 녹음해주셔서 연기를 했는데 뭔가 관객들에게 호감을 별로 못 가져서 아쉬웠는데 미진 샘은 아무 말도 해도 괜찮다며 쉬운 단어로 소리를 내라고 하면서 내 자신감이 한층 상승 됐다. 난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라는 것을 깨고, 부숩버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내 목표에 달성했다.

처음부터 리더역할까지 줘서 부담이 됐다. 처음에 잘하다가 후반쯤 왔을 때 많이 지친 내 모습이 내 자신이 부끄럽고, 아쉬웠다. 조금만 더 참자 더 참자 추슬렀지만 역효과였다. 무대에서 숨털같이 날아다니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성공적이었으나, 약간의 실수로 아쉬웠다.



# 〈추신〉을 관람하고 나서...

〈추신〉, 장애인문화예술관 2017년 작품

연극 〈추신〉의 주된 내용은 추한 몸이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연극배우 분들이 나와서 자신의 몸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솔직하게 표현해주셨다.

이번 연극에서는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장애 유형의 배우 분들과 그리고 성소수자 배우 분까지 함께 나오셔서 연극을 해주셨다.

연극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추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단순히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추한 몸인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나의 추한 면들 또한 추한 몸이 아닐까? 인간이라면 모두가 추한 면이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건 간에 말이다.

연극에서 보여주는 추한 모습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극 대사에는 이런 말이 나왔다. "OO아 너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너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른 친구들과 처럼 할 수 있어~" 그러자 장애인 연극배우는 "선생님 제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저만큼의 거리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대사는 더듬은 기억으로 쓴 것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나도 저런 추한 발언을 경

## 이은애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에서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먹는 것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합니다ㅎㅎㅎ 술이 좋은 이유는 술과 함께 그 사람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술과 함께 사랑도 좋아지는 중입니다^^

증 장애인에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발언이 어쩌면 추한 모습 추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차별이었음을..

사람은 천부인권사상을 가지고 태어난다, 서로의 모습을 비판하거나 칭송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추하다는 기준을 만든 것도 인간이고 외모지상주의를 부리박은 것도 인간이다. 사람은 본질 그 자체가 사람일 뿐이다.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가난하건 가난하지 않건 이성애자건 동성애자건 말이다.

추한 몸을 그들의 몸이라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도 연극에는 담겨져 있었다. 내가 나서서 싫다고 그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나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 들여졌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받아들이기 싫은 면을 비로소 받아들여 질 때 어쩌면 추한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 완전한 내가 되는 것은 아닐까?



# '여기, 노란들판입니다'

구멍이 송송 진행요원의 뒷이야기

## 민아영

노들 활동가.

자기소개 글이 〈노들바람〉 글 중에 제일 어렵네요. 뭘 소개해야 할까. 나를 소개할 만한 게 무엇일까. 나는 뭐지 모 그렇습니다. 천성은 한량인 것 같은데, 구르는 재주가 있어 활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노란들판의 꿈'의 시작은 내가 운영위 회의를 통해 준비팀을 준비하는 팀장이 되면서였다. 준비를 위한 준비라니, 총대를 메는 기분과 살짝 들뜬 기분이 교차했다. 여차저차 '노들공동체' 소속 단위 1명씩 구성해서 꾸렸다. 사실, 첫 회의 날 모여서 인사하고, 언제해도 민망한 자기소개를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서로 하고 싶은 아이টে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구성원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중견활동가와 신입활동가, 그리고 신입활동가라기엔 (장애인권익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어쨌든 '노들' 신입활동가인 사람들까지 재미있게 구성됐다.

24회 노란들판의 꿈 기조는 1년간 노들을 지지해 주고 함께해준 이들에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구성원 서로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왔네, 고생 많았다. 오늘은 놀자'라는 목적도 있었다. 그 기조에 맞게 춤과 노래, 공연이 주를 이루었다. 또 한 칸에 우리의 일상을 차분히 볼 수 있는 부스도 기획했다.

내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일은 노들공동체 소개 영상 제작이었다. 처음 기획은 재미있을 것 같아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대형프로젝트를 왜 한다고 했을까 수많은 번뇌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사람을 만나는 재미도 있었다. 또 매번 바쁘다, 바쁘다는 이야기만 듣다가 왜 그렇게 바쁘는지, 알 수 있는 기획이기도 했다. 실제로 다들 바빴다. 넘치는 서류더미들을 제어할 수 없어 책상과 책장에 서류가 넘치는 광경들이 심심찮게 보였다. 쉽

없이 울리는 전화벨소리는 BGM.

그렇게 다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희미한 눈썹을 휘날리며 촬영했다. 내 책상에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가는 서류더미들이 보였지만^^! 촬영은 잘 마무리했다.

아쉬운 것은 합창으로 준비했던 '시간을 달려서'와 '노래만큼 좋은 세

상' 연습장면을 영상 안에 녹이지 못한 것이다. 파격적인 선곡이었던 '시간을 달려서'는 호불호가 크게 나뉘어졌다. 유명인 박0석 교장선생님은 선곡에 대해 '망했다. 너무 어렵다.' 등등 온갖 구박을 하시며, 바꿀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나는 고집을 피웠다. 조금은 새롭고 발랄한 노래도 선곡해보고 싶었다. 결국 이 노래를 합창으로 올렸다. ㅎㅎ 그리고, 수지학생의 애창곡이 되었다.

(뒤풀이가 반을 차지했던) 기획회의 속 내용을 실현할 당일이 되었다. 8시 30분까지 도착해야만 했던 가쁜 일정의 시작, 조금 무서웠다. 10월 21일, 대학로에서 태극기집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화문 농성장에서 위협을 받았던 적이 있기에, 행사 중 시비가 붙을까 두려웠다. 그러나 이것은 나만의 두려움이 아니었다. 아침 댓바람부터 경찰 6~7명이 본인들 소개를 하며 왔다. 주 내용은 오늘 행사가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라는 것이었고, 실제로 우리 행사 팸말을 만들어 오기도 했다.

경찰과 같은 마음을 가질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그렇다고 또 소심하게 행사를 진행할 순 없지 않은가. 노들의 친구, 하자작업장학교 공연팀과 동네 한바퀴를 시작했다. 예정된 코스보다 축소해서 진행을 했지만, 공연팀의 악기소리와 사람들의 춤사위는 대학로에 놀러온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리 행사를 알리는데 성공적이었다. 물론 욕도, 항의도 빚발쳤다. ^^! 사실 행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태극기집회가 무엇을 하던 신경이 안 쓰였다. 다음 순서와의 시간을 맞추느라 태극기집회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아 집회의 효과 일지도 모르겠는데, 커피를 통해 후원금이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다.



하자작업장학교 공연팀 덕분에 마로니에 공원 야외 무대장이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다. 이어서, 노들 '피플-퍼스트'가 콜레칸과 함께 아프리카댄스를 쳤다. 몸짓으로 표현하는 감정들, 그리고 발산되는 에너지. 곱, 진행요원만 아니었다면 춤을 더 추었을 텐데, 이때 좀 많이 아쉬웠다.

야학 낮수업팀에서 보여준 몸짓, 그리고 그림들은 볼수록 사람마다 다른 면이 있고 색깔이 있다. 이게 참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자주 보게 하는 이상한 매력이다. 나는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따라 그리거나 몸짓을 할 때면, 속 시원한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 사회적 억압에 대한 해방으로부터 오나. 뭐 그렇게까지 거창하진 않고 생각지 못한, 나도 몰랐던 틈새로 훅 들어오는 느낌이라 해야 하나. ㅎㅎ 그 매력이 궁금하면 노들야학으로 놀러 오시라.

음, 코너 하나하나를 설명하기엔 글이 너무 지루

할 것 같으니 주요한 몇몇 부분만 꼽아야겠다. 기획을 하면서 몇 가지는 의도를 심기도 했다. 노들이라면 달랐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다. 누구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야할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내가 바라보는 노들은 평등을 추구하고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애증이든 애정이든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축사에 좀 의도를 담았다. 그저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말 축하인사를 받고 싶은 곳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험난하고도 바쁘거나 갈게 많은 사회에서 어깨 부비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올해도 고생했고 앞으로 서로 열심히 하자고 이야기 듣고 싶었다. 그렇게 축사는 대학로 2번 출구 떡볶이 사장님, 이음책방지기, 피플퍼스트 활동가들, 시네마달 문예활동가들에게 감사히 받았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조금 애매한 코너가 있긴 했다. '~노란들판의 기원을 찾아서~'였다. 단위별로 초창기 멤버나, 힘든 시기를 건지기 위해 애쓴 노들 활

동가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잡담회를 왜 뜬금없이 넣었냐고 하면, 옛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나 같은) 신입활동가에게 귀감이 되는 시간을 가지려는 목적이었다. 근데 이게 앞에 흥을 열심히 돋운 공연들 다음에 하니깐, 좀 애매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용이 별로였던 것은 아니다. 워낙 다들 입담이 좋으니까. 내가 더 춤을 추고 싶어서 애매하다고 느낀 건가. (흠흠)

그 땐 생각해뒀어야 했던 말들이 많았는데, 안 써두니까 이렇게 잊어먹는다. 그럼에도, 내 기억에 남았던 것은 참 많지도 싸웠을 텐데, 재밌게 기억하고 있구나였다. 재밌었을 때까지 싸운 걸까 ㅎㅎ

낮 행사는 태극기집회를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잘 끝났다. 그러나 태극기 집회를 나는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했어야 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고가 터졌다. 낮 행사를 끝내고, 노들공동체 활동가들의 친목도

모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밤 행사에 앞서 저녁식사를 자-알 먹고 싶었다. 그 욕심에 야심차게 케이터링(소규모 뷔페)을 시켰다. 행사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우리의 노동력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했지만, 교통체증은 생각도 못했다. 자본의 속도를 멈추기 위한 그린라이트 투쟁을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이런 것조차 예견하지 못했다.

갑자기 비워진 시간에도 단위별로 서로를 소개하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잘 보냈다. 점심을 도시락으로 때워서 많이 배고팠을 텐데, 이 때 진심으로 활동가들에게 고맙다. 다들 저녁식사를 맛있게(?) 먹고 2부, 노들+년센스 퀴즈쇼로 시작했다. 사회자가 당황할 정도로, 활동가들이 열성적이라 무섭기도 했다. 어색할까봐 준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어색함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었다. 기획팀에서 잘 기획한 건지, 아님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는지는 몰라도 즐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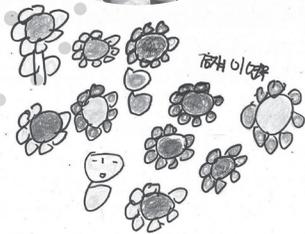
올해 노란들판의 꿈 행사가 유독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노들에서 처음으로 책임지고 맡은 행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적으로만 연결된 것은 아님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가끔은 왜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지속해야만 할까, 왜 일은 끊임없이 쏟아질까 등등의 생각을 (많이) 했다. 나만 했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아닌 노들활동가의 고생했다는 말에 울컥하는 것을 보면 내가 심적으로 기대고 있는 곳은 이곳이구나 싶다.

노란들판 안에서 논쟁하고, 싸우고, 갈등을 맺기도 한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이, 그 단위가 못미더워서 혹은 싫어서가 아니라, 노란들판이라는 공간을 더 잘 만들어가고 싶은 각자의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조금 많이 오글거리기는 하지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 과정들이 더 반짝이는 가치와 활동을 만들어오고 있음에 즐겁다.

# 우여곡절, 노들피플퍼스트 People Fi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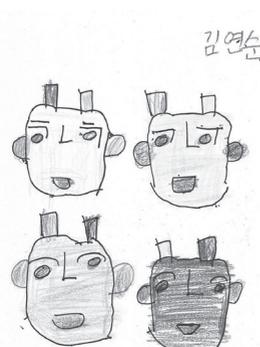
박임당

노들야학 교사, 방학을 만끽 중



노들에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낮수업”이 생긴 지 3년차이다. 정식명칭은 ‘천천히 즐겁게 함께’이고, 대략 오후 1시 반부터 가장 큰 교실이 북적대며 시작했다가, 4시 즈음이면 또 나름의 수선스러움으로 마무리가 되는 수업이다. 발달장애인 학생들에게 맞춘 수업이므로, 발달장애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대회인 ‘피플 퍼스트 People First’를 우리 수업에서도 매년 작게나마 열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렇게 “노들 피플퍼스트”가 생겨난 지 올해로 3년 차이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노들 피플퍼스트에 대한 스케치와, 필자의 시간과 정신이 버텨준다면(?) 대회에 얽힌 우여곡절에 대해서도 곁들여 볼 생각이다.

올해 대회는 ‘사람이 먼저다, 노들 피플퍼스트’라는 이름으로 10월 21일에 열렸다. 노란들판의 연례행사와 같은 날, 사전행사 형식으로 부스도 꾸리고 무대 행사도 1시간가량 운영했다.



## 1부. 부스 행사

부스행사에서는 매년 활동사진과 작품을 전시해왔다. 올해에는 200장에 달하는 사진과 학생들이 만든 ‘진Zine’, 그리고 텃밭수업 때 만들었던 과도하게 예쁜 밀짚모자를 전시했다. 담당자로부터 부스를 운영할 텐트(?)의 크기를 들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과도한 크기(5M\*5M)의 텐트에 한숨이 폭폭 나왔다.

하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엄청난 양의 사진 인화를 주문해 두지 않았던가! 두 벽면에 노끈을 동여매고 작고 (부러지기 쉬운)나무 집게로 엄청난 양의 사진을 모두가 매달려 죽어라고 걸었다. 그리고 목요일 수업 때마다 각자의 성격과 외모(...)를 200% 표현한 ‘진Zine’도 전시했다!

그런데 ‘왜 외모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자면, 학생들이 진에 그려 넣은 사람들이 해당 학생들을 똑 닮았기 때문에... 하여 여기서 진을 더 보고 가야 하겠다. 예쁜 그림들이

너무 많아서 ‘스티커로 만들어서 판매하자!’는 계획을 급하게 추진하다가 제작 단가를 알고 포기했던 비운의 진Zine들!

## \*피플퍼스트\_진들

재미있는 사진과 작품이 담긴 부스는 1시간가량 짧은 시간으로 운영했다. 그런데 결국 부스 안에서 별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진 못했다. 모여서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부스를 어설펁게 운영하면서 생각한 것은, 낯선 사람들이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다가올 때, 어떠한 형태여야 할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한 것 같다. 무엇보다 방문객(?)이 당사자와 만나야 할 텐데, 그 만남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일까? 그동안 부스 운영에 대한 실패가 있었고, 당사자가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구나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수업을 운영하는 우리 교사들은 이러한 행사에서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힘을 보태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부스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한지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 하였는가?





커다란 부스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과 시간을 채우는 일은 만만치 않고, 준비할 시간과 내용, 질문거리들 또한 넉넉해야 했다는 생각을 남기며 부스 행사가 종료되었다.

## 2부. 행진과 무대공연

부스가 끝난 2시부터, '하자작업장학교'의 연주와 함께한 동네 한 바퀴로 무대 행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아프리카댄스팀, '쿨레칸'과 함께하는 댄스타임! 엠마를 비롯한 쿨레칸의 멤버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낮수업을 통해 노들과 만나고 있다. 한번은 무대 리허설을 위해 마로니에 공원에서 연습하고 있는 이들을 만났었다. 아프리카 전통 북을 흥나게 치며, 다 같이 모여 환호하며 춤추고 있으니 사람들이 절로 모여드는 진귀한

광경을 목격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예고편에 불과했던 것. 당일의 무대는 완벽하게 아프리카댄스팀의 것이었다. 아무리 글로 옮긴다 한들 그것이 옮겨지지는 않으니 사진을 공유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흥을 어찌할까나. 흥나는 잔치에 이어 당사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말한다' 코너를 위해서다. 활동사진이 무대 한 켠에 마련된 스크린 위로 올라갔다. 첫 순서는 당사자들의 런웨이. 레드카펫 대신 핫핑크 카펫을 깔고 그 위를 패션쇼 런웨이하듯 걸으면서 무대를 즐기는 시간이다.

사전에 런웨이를 연습해보기 전에는 이러한 무대를 학생들이 충분히 즐기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대회를 며칠 앞두고 급작스럽게 무대 행사를 조율하던 중, 혜성처럼 등장한 구 야학교사 민구

는 당사자가 무대를 장악하고 즐기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었다. 그림에도 드는 생각, '단지 어설픈 매트 위를 걸어 나갔다 들어오는 것뿐이잖아....거기서 무얼 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은 너무 큰 걱정이었을까.

누구는 사랑의 총알을 20방쯤 날리다 발목을 접질리고, 무대를 걸어 나가며 웃옷을 휩 벗어나 던지기도 했다. 특유의 뒹뒹기 동작을 선보인 사람도 있었다. 런웨이 배경음악이 크게크게 나오는 가운데 좋아하는 트로트를 목청껏 외쳐 부르는 사람, 어리둥절해 하며 런웨이를 걸어 나갔다 걸어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다. 또 누군가는 런웨이를 또 한 번 걷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재차 걸어 나갔다가 백스텝을 밟으며 들어오기도 했다.

어설픈데 붙여 놓은 핫핑크 카펫이 뜯어져 나올 정도로 여유롭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심지어 어설픈데 붙인 카펫이 자꾸 뜯어져서 구겨져자 그걸 잘 당겨서 다듬은 다음 잘 눌러 붙이고 런웨이를 걸어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마지막 순서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사전에 수업을 통해 각자 자립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으는 작업을 했었다. 큰 전지에 누워서 서로의 실루엣을 그려주고 그 안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오려 붙이는 것이다. 오릴 재료들은 패션 잡지책, 인테리어/건축 잡지, 관광안내서, 마트 전단지 등을 모아서 각자 골랐다. 가스레인지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이나 침대 같은 가구 등은 컬러 프린터로 출력해 준비했다. 종이비행기의 한쪽 면



에는 이렇게 작업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프린트 했다.

반대편에는? 부스행사에서도 전시했던 학생들의 '진Zine'을 프린트 했다. 종이 위에 새겨진 무늬가 좀 복잡스럽긴 해도 그럴싸한 종이비행기가 완성되었다. 잘 날아가는 모양으로 단단히 접고 무대 위에서 다 같이 비행기를 날렸다. 비행기는 바람의 힘과 아래에 사전 배치된 요원(?)들의 활약을 빌어 관객들에게 속속들이 도착했다.

비행기를 받은 관객과 그 비행기의 주인공 당사자들이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비행기에 당첨(?)된 사람은 비행기를 열어 그 비행기 주인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거나, 비행기 안에 있는 내용을 대신 읽거나, 그에 관해 간단한 질문을 하거나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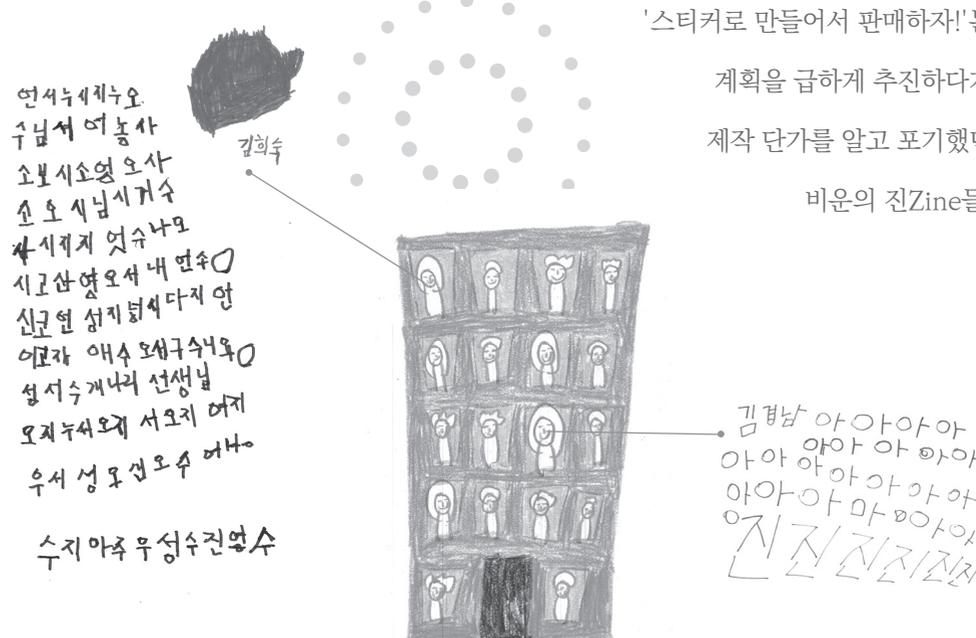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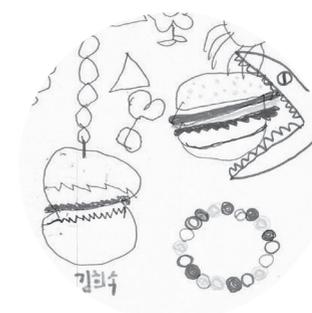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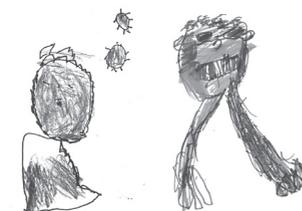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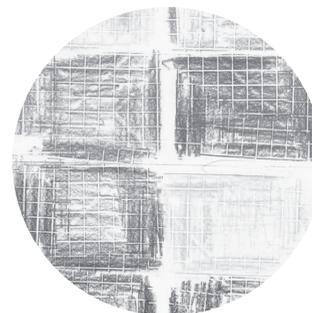
활동보조인 교육장에서 수업을 다 같이 한 시간 미루고 참여한 관객은, 활동보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비행기 내용에 응답하였다. 진을 그린 사람과 똑 닮은, 진 속의 두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관객도 있었다. 시계를 눈여겨 본 관객은, 시계를 좋아하냐고 물어보았다. 서로 소개를 하고 이름을 불러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관객도 당황하고 어떻게 대답할지 당사자도 난감해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다소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서로 한 가지라

도 나누는 시간을 위해 애를 쓰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실 무대 위 주인공일 당사자들은 그 순간을 완전히 편안하게 느끼진 않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사회자가 중간에 질문을 거들기도 했고, 무대 위에 있던 조력자는 관객의 질문을 풀어 전달하면서 당사자가 평소 생각을 전달하는 데 힘을 보탤다. 이러한 대답들과 더불어서 갑자기 신명나게 노래를 부르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더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모습들은 피플 퍼스트만의 풍성함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런데 이러한 무대의 풍성함이 있었다면 이는 온전히 당사자의 끼와 표현력 덕분이었다. 긴 호흡을 가지고 무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행사와 무대에 대해 오랜 시간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우리 조력자들은 지원했을까? '피플 퍼스트 People First'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준비하고 꾸려나가는 대회이다. 이러한 당사자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지원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대의 무거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소통하는 것은 조력자의 몫이 아니었을까?

푹푹 찢러오는 질문들을 남기면서 노들 피플퍼스트에 대한 갈무리를 마치려고 한다.



예쁜 그림들이 너무 많아서 '스티커로 만들어서 판매하자!'는 계획을 급하게 추진하다가 제작 단가를 알고 포기했던 비운의 진Zine들!

# 어둠모꼬지 〈노들 선감도에 가다〉

이현아

첫 학기 수업을 가까스로 마치고  
스스로 대견해하는 중.  
수업을 빠진 횡수와 뒤풀이를  
빠진 횡수가 동일하다(...)  
노들 덕분에 안 그래도 짧은 주말이  
부쩍 짧아진 느낌이다.

나의 첫 노들야학 모꼬지가 이렇게나 좋았던 것은 참으로 행운인 것 같다. '좋았다' 이상으로 글로 표현할 자신이 없어서(...) 틈틈이 도착한 사진들로 보안을 해볼 예정이다.

11월 10일 오전 10시, 집결 시간이 30분이나 남았지만, 조금은 쌀쌀한 날씨에 옹기종기 모여 수다를 떨며 설레는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는 이, 7시에 집에서 출발했다는 이, 도로 공사로 두 시간이 넘게 걸려 도착했다는 이 등 사연이 다양했지만, 모두 이렇게 험난한 여정이 익숙한 듯 노련하게 약속 시간을 잘 지켰다.

출석 체크를 하고 짐 꾸러미들을 챙기다보니, 드디어 우리가 타고 갈 버스와 승합차들이 하나 둘 도착했다. 버스 여행이라니! 지금까지 캠나 수련회 등 단체여행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내 몸과 휠체어가 분리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었고, 휠체어를 들어 별도의 공간에 싣는 것은 드는 사람이나, 그걸 보는 나나, 서로가 너무 힘들었다. 그렇기에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동행하지 않는 한, 여행을 포기하는 편이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힘들지 않아도 되는, 휠체어 탑승 가능한 버斯拉니, 정말 너무나 좋았다. 휠체어들이 테트리스 조각처럼 빈칸에 쏙쏙 들어가 자리를 잡았고 나는 운 좋게 가운데 줄의 제일 앞자리를 차지했다. 전방 유리 좌와 양 옆 유리 좌로 사방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당이었다. 시외로 멀리 차를 타고 나가는 일이 흔하지 않은 지라 풍경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이 단점을 칭하는 때에도 내내 말뚝말뚝했다. 넓게 펼쳐진 시커먼 갯벌이 목적지에 다 와 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평소 바다를 무척 좋아하는 나이지만,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 때문이었는지, 그날의 바다는 슬펐다.

선감도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도착. 다시 테트리스를 분해하듯이 휠체어가 한두 대씩 리프트를 타고 길바닥으로 내려갔다. 섬 아니랄까봐 매서운 바람이 우리를 맞았다. 서울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빨강과 노랑이 선명한 단풍나무들이 즐비했다. 아, 정말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구나 생각했다. 늦은 점심으로 도시락을 폭풍 흡입하고 나서는, 흐리고 쌀쌀한 날씨에도 개, 토끼, 공작 등



집결 장소에 모여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을 기다리는 중



단풍나무 아래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학생대표님들



출발 후 십여 분, 하나 둘 쏜나라로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에도 야외가 좋은 사람들



점심 식사 후 단풍과 동물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중



환상의 호흡 1 - 고장선과 활보 창조



환상의 호흡 2 - MC진수와 MC승천

을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과 만나며 어여쁜 단풍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산책들을 즐겼다.

팀의 노력이 단연 돋보인 운동회 시간에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준비되었다. 팀 이름에도 녹아든 센스(!) - 장(애 등급제)페(지)팀, 부(양외무제)페(지)팀, 수(용시설)페(지)팀. '몸으로 말해요'에서는 팀을 가릴 것 없이 합심하여 문제를 맞히는 훈훈한 장면들이 연출되었고, 'OX 퀴즈'에서는 모교지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후에 페이스북 라이브 본방을 사수하며 달랬던 박호 교사가 무려 근무 중에 진행팀의 전화를 번개 같은 속도로 받는 바람에 1차로, 허행 교사가 팔씨름 대회에서 아들 오이의 진심어린 응원 덕에 어쩔 수 없이 이철 학생을 이기는 바람에 2차로 탈락자가 대거 발생했다. (후에 팔씨름 참가자 둘 다 후유증으로 고생했다는 후문이...) 이어달리기 출전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역동적인 장면들이 넘쳐났던 운동회를 마치고, 나를 포함한 신입교사 네 명은 허둥지둥 모였다. 각자 집에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지만 한 번도 함께 맞춰보지 못한 탓에 우리는 밥 먹는 것도 미루고, 리허설을 하는 것 마냥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드는 휴게 공간에서 벼락치기 연습에 돌입했다. 이상하다, 분명 혼자 연습할 때보다 음이 높은 것 같은데 똑같단다. 전주와 간주가 끝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기 위해서, 맹연습은 저녁 식사 후에 식당에서 쫓겨나 복도에서도 계속되었다. 세 곡씩이나 준비하고 화려하게 '노들가왕'의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다(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땡 땡 땡. 그 흔한 "한 번 더"도 한 번 나오지 않았고 앵콜송은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조금 섭섭한 마음을 안고, 학생들의 무대를 감상했다. 끼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수업시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feel 충만한 학생들의 모습에 놀라기도 하면서, 몸을 들썩이며 즐겼다. (흥에 심취하느라 사진 찍을 겨를이 없었다며 사진이 없는 것에 대한 변명 하나.)

드디어 시작된 뒤풀이 시간. 시상식보다 뒤풀이 음식에 더 매료된 사람들은 노래도 부르면서, 못다 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같은 반 학생들, 교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불수레반 학생들과 술을 마시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아 열심히 임했고, 그렇기에 짧았던 뒤풀이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다. (그 아쉬움을 여자 교사방에서는 새벽 네 시까지 이야기 꽃(!)을 피우며 달랬다는 후문이.) (이야기에 심취하느라 미처 사진을 찍지 못했다는 변명 둘.)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챙겨먹은 부지런한 사람들 중의 한 명이 되는 데 실패하고(...) 아침에 힘겹게 눈을 떴다. 창문 밖으로는 어제와는 달리 너무나 파랗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다. 이렇게 맑은 날에, 우리는 '선감학원'의 역사를 들으러 떠났다. 차로 오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를 가느라 버스를 타고 내리는 시간이 더 길었을까라도, 이 버스가 아니었다면, 함께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 생각했다.



이어달리기 - 휠체어 팀의 출전 선수들



파란 하늘과 노랗고 빨간 단풍



정진각 선생님과 경청하는 사람들



원혼들을 만나러 가는 길



모지를 바라보는 사람들



선생님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사람들

20년 이상을 선감학원의 사건을 알리는 데 헌신해오고 계신 정진각 선생님의 진정성 있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이유 없이 존재만으로 학대받고 차별받는 우리의 삶과 그 곳의 역사가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 곳에서 희생당한 원혼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길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다웠지만, 마냥 즐거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 슬펐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걷고 걸어 묘지에 도착해, 모꼬지의 들뜸과는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는 침묵과 경건함 속에서, 우리는 선감학원과 만나야 했고, 만날 수 있었다. 꼼찍하고 잔혹한 폭력의 이야기를 한참이나 듣고 난 후에도, 가을 하늘은 여전히 높고 파랬다. 그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햄버거를 먹고, 선감도와 작별 인사를 했다. 짧은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지만, 선감도에서의 모꼬지 추억, 그 곳의 아픈 역사는 모두의 가슴에 길게, 길게 남았으면 좋겠다.

## 왜 어둠이라고 했을까? 이제는 알 것 같다

노들야학 모꼬지를 다녀와서

≡ 박정숙

나는 노들 야학 학생(휴)이고 상근 활동가 박정숙입니다.

여름부터 기대하며 기다린 모꼬지를 가을을 지나 겨울 초입 11월에 이룸도 낯선 안산 선감도로 갔다.

우리의 여행은 버스를 타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리프트가 있는 버스 2대로 몸과 휠체어가 분리 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순서를 기다려 탑승했다. 자리를 잡고 고정 시키고, 조금은 분주했다. 시간은 걸렸지만 재미있게 사진을 찍으며, 모두가 편안한 즐거움이 함께 하는 시작이었다.

함박웃음에 행복한 손가락 브이를 하고 서울을 떠나 안산 대부도를 지나 3시간 가까이 걸려서 선감도에 도착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고 조금 있으니 비바람이 치기 시작했다. 시선 멀리 수평선 같은 것이 보였고 텅 빈 갯벌이 스산해 보여 웬지 내 마음엔 쓸쓸한 곳이 었다.

넓은 주차장의 바람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차가웠다.토끼와 공작새 또 생뚱맞게 개 4마리가 강당 앞 우리에 있었다. 동물원처럼 이름과 그들의 소개가 있는 팻말이 붙어있어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학교에서 준비한 도시락은 참 맛있었다. 배가 무척 고평던 나는 육식 맞게 도시락 2개를 먹어 치웠다. 그리고 커피... 선생님들의 수고로 내려진 핸드드립 커피는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아~~ 이것이 모꼬지의 행복이구나... 모꼬지 첫 끼니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안 왔으면 이 맛, 이 기분을 몰랐을 테니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 뻔 했어”

참 잘 왔다고 생각했다. 식사 후 배정받은 방에 짐을 풀어놓고, 강당에 모여 조를 찼다. 선생님들이 밤새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알록달록한 종이꽃 성화 봉송과 열띤 응원전으로 게임과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몸의 움직임으로 단어를 맞추는 게임은 정말 웃기고 못 맞춰도 재미있었다. 그다음은 O, X 게임... 문제가 정말 기발하고 웃겼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전통 휠체어 이어달리기와 2인3각 경기는 정말 열기가 평창올림픽은 저리가라 뜨거웠다.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운동회는 처음 인 것 같다. 나는 학교를 초등학교만 졸업했고, 체육시간이나 운동회는 교실 지키는 아이였기에 제대로 즐겨본 기억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웃기고 재미있는데... 해마다 봄이든 가을이든 야학 운동회를 모꼬지 운동회같이 재미지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2부 프로그램으로 이날의 하이라이트 노들가왕이 시골벽적 시작





되었다. 춤 하면 경남 씨 노래 하면 장기 씨.. 역시나 흥 폭발이다.

중요한 건 내가 마이크를 잡았다는 거다. 워낙 노래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공포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노래를 불렀다. 행복한 밤이다. 모든 경기가 끝나 시상식하고 환호하며 서로 격려하고 이어진 즐거운 파티시간.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온다. 둘러보니 상기되고 들뜬 얼굴들이 전부 다 아름다웠다. 하루를 이렇게 많이 웃고 잘 먹고 재미있었던 때가 언제 또 있었을까 할 정도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일지 벌써 기대 되고 흥분이 쉬 가라앉지 않아 잠을 설쳤다.

밥 먹으러 오가며 단풍잎을 주워 모으고 솔방울을 주우며, 가을에 이곳에 한 번 더 오고 싶다고 생각했다. 선감 학원이야기를 듣기 전엔 그저 풍광 좋은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있었던 감화원, 현재 경기창작센터 자리가 바로 선감학원이 있던 자리라고 했다. 우리는 선감학원으로 이동했다. 20년이 넘도록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을 추적조사하고, 처참했던 그 이야기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 정진각 선생님의 안내를 받았다. 그곳에서 죽어간 많은 어린 영

령들에 대해 사진 해설과 함께 구타와 굶주림으로 탈출하다가 갯벌에 빠져 죽어간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슴이 울컥하고 코끝이 시려왔다. 소년들의 시신이 매장된 곳에 섰을 땀 눈이 따끔거리고 귀가 웅웅 울렸다. 그들의 비명이 바람 속에 숨어 맴돌고 있는 걸 본다.

우리는 밝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어둠 모꼬지 노들 선감도에 가다 했을 때, 왜 어둠이라고 했을까? 나는 사전에 진행됐던 선감학원이야기 수업을 못 들어서 의아했었다. 왜 어둠일까?

이제는 알 것 같다.

첫날은 몸에 독소가 빠져 나가는 신나는 날이었다면, 둘째 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는 뜻 깊은 날이었다. 테마가 있는 이번 모꼬지는 나에게 같이 간 남편에게, 집에서 밥상머리 담소로 나누게 된 아들에게, 어두운 역사이지만 그것을 돌아보며, 함께 마음 아파하고 나는 대화로 또 한 번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었다.

우린 내년에도 모꼬지를 계획하고 또 갈 것이다. 어떤 테마를 찾아 떠나게 될지 궁금하고 기대하는 바이다.

## 베이징에 다녀왔어요!!

이형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제3차 아시아·태평양(아·태) 장애인 10년 인천전략 이행 중간 평가를 위한 고위급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국제회의는 UN ESCAP(유엔 에스캅: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아·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947년에 창설됨)이라는 국제연합(UN)산하 기구에서 주최하는 회의이다. 정부 고위급 회의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인 우리에게 발언권은 없으나,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으로 선언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정부를 비롯한 아·태 국가들이 장애인 인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향후 5년간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참관을 했다.

역시나 62개 각국의 고위급과 장관급 회의와 5년 동안 인천전략 평가 보고를 들어보면 정부 대부분이 자국의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한국정부도 여전히 인천전략 이행을 국제교류 사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대회 기간 중에 진행되는 사이드이벤트(기획행사)에서 '한국의 장애인운동에 의한 장애 정책 변화 성과'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 5년 성과 보고회에 발표자로 참석하게 되었다. 5년간의 농성을 통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3대 적폐청산을



요구한 것이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장애등급제 재검토 등 장애복지법 개정을 권고한 것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짧은 광화문농성 영상을 보여 주었다. 영상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준비한 PPT 자료 발표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우리의 광화문농성 투쟁을 듣는 이들의 놀라움과 부러움이 눈으로 보였다. 5분의 영상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초집중 되어,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반짝였다.

역시 우리의 투쟁영상에 매료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참석자들은 영상 속에 나오는 박경석 대표를 알아보고 기도 하고, 발표자인 내가 영상에서 쇠사슬을 감고 땅바닥을 기는 모습이 나오자 안타까움과 분노도 보였다. 영상이 끝나자 감동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성과 박수를 쏟아냈다. 우리의 5년의 광화문농성이 전달된 것이 느껴지면서 매우 가슴이 벅찼다. 사실 이럴 줄 알았다. 영상에 우리의 투쟁이 고스란히 반영 되었기에 영상을 더 상영 했으면 더욱 체감하고 전달력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 속에서 협력을 통한 사회적약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컨트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국의 자립생활운동을 전파함으로써 국제 단체들의 권리강화 운동의 주체적 활동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의 운동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더 열심히 투쟁해야겠다는 각오이다.

우리의 5년의 광화문농성이 전달된 것이 느껴지면서 매우 가슴이 벅찼다.

또 한국의 자립생활운동을 전파함으로써 국제 단체들의 권리강화 운동의 주체적 활동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 '나도 혼자 산다' 단기 체험홈을 마무리하면서

공동모금회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모델개발사업 후기

사단법인 노들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은 컨소시엄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모델개발사업인 '나도 혼자 산다'를 진행했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0월 까지 3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2개월 단기 체험홈"을 운영하였습니다. 저는 남성 단기 체험홈 코디로 2015년 10월에 입사해서 2년 동안 참여자들의 체험홈 거주 지원과 그 후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험홈 참여자 열다섯 분 중 총 아홉 분이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정착해서 잘 살고 계십니다. 세 분은 시설에 복귀하신 후 자립을 준비 중이고, 이 외에 자립이 늦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양의무제로 인한 가족의 자립 반대입니다. "부양

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우리가 투쟁하고 연대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체험홈을 마무리하면서 지원 사업은 마무리 되었지만 자립을 기다리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판에서 꾸준한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개월 단기 체험홈을 지원하면서 사업 자체가 참 매력 있었습니다. 2개월 짧은 체험이 한 사람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시설 해서 지역사회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요즘 여행 다니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다 자랑하시며 까맣게 탄 얼굴로 웃으실 때, 투쟁 현장에서 활동가로 활동하시면서 같이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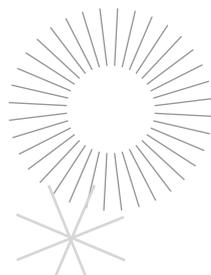
쟁할 때, 감동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물론 해결되지 못하는 순간들이 더 많았고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투쟁본능이 마구 솟구쳤습니다.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 투쟁은 생활이 되었고 야근도 일상이 되었고 그동안 딸내미, 아들내미들은 무력무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삶이 역동적이고 내 의지가 주인이 된 적이 있었을까? 내일도 투쟁의 현장에서 노들로, 센터판으로 웃으며 있겠죠!! 탈시설을 지원하면서 비슷한 탈시설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탈시설과 삶을 살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투쟁!! 오늘 정말 투쟁하고 싶은 날입니다.

### 최정희

안녕하세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남성체험홈 코디 최정희입니다. 저를 소개하려니... 멀리네요.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거주하고 있고 저랑 비슷하게 생긴 짝꿍 둘을 담은 삼양초 3학년 딸과 1학년 아들을 둔 워킹맘입니다. 요즘 방학 중인 아이들과 독감에 걸린 저는 휴가를 내어 연말을 같이 보냈는데 정말 오랜만에 편하고 평화로운 연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독감 조심하시고요.



## 장애인 독립진료소를 지원, 후원 해주세요!



후원계좌: 사단법인 노들  
국민은행 992401-00-003529

안녕하세요?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와인 권 발바닥행동,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가 공동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독립진료소 인사드립니다.

‘한방의료활동 들꽃’의 농성장 진료연대로 시작된 장애인독립진료소가 어느덧 9년 넘게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진료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시다는 사실에, 저희도 놀라움과 감사함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낍니다. 어디를 가도 준비한 한의원과 병의원들을 보며 왜 굳이 저희를 찾아오실까 가끔 의문이 들다가도, 진료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머리가 멍해지기도,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9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장애인독립진료소도 꽤 많이 변화한 것을 느낍니다. 운영단

위도, 운영위원들도 조금씩 변동이 있었고, 환자분들의 외연과 진료소 규모도 확장되었습니다. 양적인 확장이 꼭 질적 향상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진료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진료소도 그러한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능했던 주된 이유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어젠다 중심의 성과관리 모델 개발 시범사업’에 선정된 ‘우리 마을은 모두가 건강해요!(장애인 주치의사업)’ 때문이었습니다. 2년간 시범사업 단위로서 장애인 독립진료소는 진료 규모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200회 이상의 한의사 방문진료까지 건강권 연대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독립진료소의 활동은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2018년 시행되는 데에도 기반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독립진료소를 후원해달라는, 조금은 송구스럽기도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독립진료소는 누적인원 1500명이 넘는 환자분들에게 한방진료 연대활동을 해왔습니다. 형제복지원, 420공투단 의료연대 등 장애인차별철폐 투쟁 현장에도 연대해왔습니다. 일반적인 한방의료 봉사에서 침치료가 주된 수단인 것에 비해, 장애인독립진료소는 한약제제, 한방파스, 첩약(한의원에서 직접 탕전한 한약)과 같은 다양한 치료 수단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료적 필요도 있지만, 일반적인 한의원 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게 장애인독립진료소의 모토

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400분 넘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방파스 2000장, 한약제제 1400일본, 첩약 100제 정도를 처방해왔습니다. 이를 원가로 환산해도 1년에 1500만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데, 청년한의사회 회원들과 일부 한의계의 후원으로 반, 최근 2년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으로 반을 충당해왔습니다. 2017년 5월부터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끝났지만, 장애인 진료소의 규모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아마도, 장애인독립진료소의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첩약자원을 하는 한방진료소라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들이 첩약 처방에 가장 만



족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간 꾸준히 장애인분들의 건강 상태를 살핀 진료소의 판단은 장애인진료소에서 첩약 처방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독립진료소의 별도 재정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첩약뿐만 아니라 한약제제와 한방파스 지원 규모는 최근 2년간의 1/2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장애인독립진료소를 조금이나마 후원해주시라는 부탁을 이렇게 지면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9년이 넘게 운영되는 2018년의 진료소 모습을 미리 상상하고 장애인독립진료소를 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진료소가 성장하도록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의 기대와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노들장애인

야학,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는 이 순간을 계기로 장애인독립진료소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나아갈 몇 년은 어떤 진료소의 상을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기여할지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에 옮기려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애인독립진료소 드림

후원계좌: 사단법인 노들  
국민은행 992401-00-003529

자립 생활을 알려주마

# 오직 운뿐이라~! 오 지 우 뿐이다~!

겉 없는 자립생활자  
오지우 학생 인터뷰

김진수

얼마 전에 눈썰매를 탔습니다.  
남이 끌어주는 썰매를 얼마 만에 탄 건지...  
남의 썰매를 얼마 만에 끈 건지... 모르겠더군요.  
아무썬 겨울에는 넘어지지 않게  
끌러가는 것도 끌어주는 것도 조심조심!



자립생활을 한 학생 중에 가장 재미있게 산다고 알려진 오지우님을 만났다.

만나기 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 재밌게 사는 모습을 봤었다.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오픈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 모습이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들, 선뜻 용기 내기 어려운 삶의 일탈을 거침없이 하는 모습들을 보며 종종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지우 씨는 인터뷰 중간 중간 자기는 운이 좋은 것 같다는 말을 내뱉곤 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말도 덧붙였다. 자립생활을 하고 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살다 보니 겉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두 말을 붙여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겉 없이 살면, 운은 좋아진다.  
겉 없이 운 좋게 살고 있는 오지우 학생의 인터뷰를 들어 보시라. 삶에 겉먹지 않는 것이, 즐거운 자립생활을 만들 지도 모른다.



>> 오지우님 안녕하세요.

**지우** 안녕하세요.

>> <노들바람>에 '자립생활을 알려주마'라는 코너가 있어요. 무슨 의미 같으세요?

**지우** 자립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요.

>>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자립생활을 잘 할 수 있죠?

**지우** ....

>> 그러면 다르게 질문해서요. 자립생활을 잘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면 자립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 그럼 지우 씨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우** 여행이요.

>> 어떤 여행이요?

**지우** 이곳저곳 다니는 거요. 해외도 가고. 바다도 보고.

>> 또요?

**지우**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거요.

>> 전에 시설에서 사셨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셨어요?

**지우** 19살부터 31살까지요.

>> 시설에 있기 전에는?

**지우** 집에서만 살았어요.

>> 집에서만 살 때도 여행은 못 가셨나요?

**지우** 아예 나간 적이 없어요.

>> 시설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로였겠네요.

**지우** 그쵸. 거의 안 나갔죠.

>> 시설에서 자립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지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시설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지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돈 문제도 있고, 집도 구해야 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고민들과 걱정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지우** 수급자가 되면 수급비가 꼬박꼬박 나오니까 걱정 없고 수급자 되는 게 걱정이지요.

>> 그럼 수급비로 여행 다닐 수 있다는 건가요?

**지우** 아니요. 센터를 잘 만나야 해요. 센터에서 여행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걸 잘 알아 봐야 해요. 물론 돈을 모아야 하긴 하지만.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여행을 가는 편이에요.

>> 개인 사업도 하고 있지 않으세요? 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지우** 밀질 게 없어요. 빛은 안 쬐요.

>> 사업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우** 어떤 센터에서 인터넷 쇼핑물 강의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거 듣다가 하게 됐어요.

>> 근데 듣는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우** 바로 할 수 있던데요.

>> 그래요? 준비해야 할 게 많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도 내야 하고.

**지우** 그렇죠. 국세청 가서 사업자 등록증 내면 돼요.

>> 수급자완 지장 없나요?

**지우** 수급자랑은 지장 없어요.

>>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탈락될까봐 돈벌이를 잘 안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우 씨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게 되셨죠?

**지우** 그냥 심심해서요. 재미있을 것 같고. 돈 벌면 좋은 거니까.

>> 그럼 자립생활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이 사업하는 거였나요?

**지우** 사업은 힘들어요. 왜냐면 물건 사진을 업데이팅해야 하니까요. 일이 많아요. 근데 팔리면 기분은 엄청 좋아요.

>> 자립생활 하면서 내가 자립생활을 잘 했다고 느낀 순간 없어요?

**지우** 여행 다닌 거요. 2011년도에 시설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장애인들이 14명인가?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집이 없어서 체험홈에 있고 그런데 나는 임대아파트도 쉽게 당첨 되고 다른 분들은 아직 체험홈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내 집이 있고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운도 좋고 사람을 잘 만난 것 같아요.

>> 프로필 사진 보니까 오픈카를 타고 찍은 사진이 있던데요?

**지우** 스포츠카를 타고 싶어서 활동보조인 아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타게 됐어요. 여행의 시작도 활동보조인을 잘 만나서 하게 됐는데 한번 하고 나니까 두 번, 세 번은 쉬웠던 것 같아요. 여행 다니면 겁도 없어지고. 원래 겁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 그럼 지우 씨가 자립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앞으로 자립생활을 할 사람에게 해드릴 조언은 일단 겁이 없어야 하고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 건가요?

**지우** 사람을 잘 만나야 하죠.

>> 어떻게 하면 센터를 잘 만나고 사람을 잘 만날 수 있나요?

**지우** 글썽요... 자기 복이 아닐까요...? 본인의 능력? 사람을 보는 능력?

>> 그렇구나. 힘들 때는 없었어요?

**지우** 나와서 처음 자립해서 활동보조 시간 없을 때 빼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도 힘들게 생각을 안 했어요.

>>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그런 성격도 자립생활을 잘 하는데 한 몫 했나요?

**지우** 그런 것 같아요.

>> 그럼 지우 씨가 생각하는 자립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겁 없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데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가 되겠네요.

**지우** 네 맞아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나요?

**지우**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말해주세요.

**지우** 결혼이요.

>> 결혼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지우** 세계여행이요.

>> 언제쯤 가능할 것 같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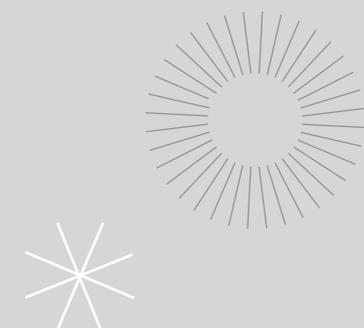
**지우** 글썽요. 알아봐야죠.

>> 알아보고 반드시 할 거지요?

**지우** 그렇죠. 반드시 할 거예요.

>> 1년 안에?

**지우** 그쵸. 1년!!



저도 모든것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보였죠  
그리고 나의 편견도 없어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은 것을  
정반대 삶을 60평생 살아왔는데  
7년간의 활동보조인으로서 이 삶이  
더욱더 의미있고 보람되고 --  
대음이 허락하는날까지 남옥씨를  
같이 웃고 웃으며 살립니다.  
사랑합니다

활동보조인  
이경숙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 남옥 씨랑 같이 웃고 웃으며 살립니다

이경숙

60살이 넘었어도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쉬게 되자 일중독이 있어서 그런지 친구한테 일자리 없냐고 했더니 저를 데리고 대학로 노들야학으로 데리고 왔죠.

그것이 노들과 인연의 시작이지요. 벌써 7년 전 이야기네요. 교육을 받고 활동보조가 제대로 무엇인 줄도 잘 모르면서 평원재에 있는 남옥 씨를 처음으로 만났죠. 남옥 씨의 첫인상은 눈이 소 눈을 덮아서 크고 순박하고 해맑게, 웃는 모습이 좋았어요.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착하지요.

처음에는 시간이 없어 제가 혼자 다 했지만, 지금은 활동보조인이 4명씩이나 되지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동안 많은 발전을 했지요. 남옥 씨는 자립까지 했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느낀 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고인이 되었지만 평원재의 이사장님 박경석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노들 선생님들, 센터 식구들 각 종교단체 그리고 밀알 선교단. 밀알 선교단은 저랑 남옥 씨랑 같이 3박 4일 동안 여름수련회를 갔다 왔지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자신이 참으로 그동안 헛살았구나 하죠. 저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보였죠. 그리고 나의 편견도 없어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은 것을 알게 되었죠. 정반대 삶을 60평생 살아왔는데 7년간의 활동보조인으로서의 삶이 더욱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제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남옥 씨랑 같이 웃고 웃으며 살립니다.  
사랑합니다.

뽀글뽀글 활보상담소

# 65세가 되면 하루 4시간만 살라는 건가

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대표 인터뷰



박명애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늦은 나이에 야학을 만나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고, 10년을 꿈같이 보낸 박명애입니다. 장애인이라는 굴레 속에서 나 자신을 깨고 나오려고 하지만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도 맨-날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하구요,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운동 자체가 일이 된 것이 행복하고, 이를 통해 만난 사람들도 너무 좋습니다.

민아영

노들 활동가.  
자기소개 글이 <노들바람> 글 중에 제일 어렵네요. 뭘 소개해야 할까.  
나를 소개할 만한 게 무엇일까.  
나는 뭐지 모겠습니다.  
천성은 한량인 것 같은데,  
구르는 재주가 있어 활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영** 따님하고 자주 통화를 자주 하시나 봐요.

**명애** 딸이랑 같이 살고 있다 보니, 자주 연락해요. 활동보조 투쟁 할 때, 집에 안 들어가고 시청에서 농성하고 있을 때는 딸이 중학생이었어요. 여기(농성장)에서 등하고 하고, 그 때 이야기를 했던 게 '엄마 활동보조 생기면, 너 하고 싶은 거 다하고 다닐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영** 활동보조서비스는 2008년부터 받으신 건가요?

**명애** 2007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가 시작 됐잖아요. 그때, 160~180시간을 받았던 것 같아요. 2007년 전에는 활동보조가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제도를 알고서 알음알음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아영** 2000년도부터 야학을 다니셨으면 어떻게 다니셨어요?

**명애** 내 주위에 경제적으로 밝은 언니가 있었는데, 헌옷수거함에 웃을 모아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장사해서 남은 돈 지원해 주고 뭐 그런 걸 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언니들이었는데,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우리 같은 장애인한테  
안 맞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구요.  
진짜 두려워요.  
노인장기요양 같은 경우에  
노인에게도 시간이  
굉장히 적은 거죠.

어쨌든 그 언니가 같이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나갈 일이 걱정이었어요. 언니들이 콜택시나 차를  
불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같이 했어요. 그  
러다가 언니가 대구에도 장애인야학이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계단이 5개 정도  
있었거든요. 계단도 못 내려가는데 어떻게 야학  
을 가냐고 그랬죠. 야학에서 어떻게든 오기만 하  
면 돌아가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공부하  
고 싶더라고요. 그 당시에 47살이었는데, 콜택시  
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저씨들이 앉아서 운전  
을 하다 보니 허리가 안 좋아서, 업혀서 올라가야  
했어요. 야학도 2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서 거기도 업혀서 계단을 올라가야하는 거였어요.  
심장병환자들 이동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전화를 했더니 이동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예요. 야학을 일주일에 월수금 3번씩,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를 이용해서 다녔어요. 한 번에 갈 때  
3000원이었는데, 그럼 9000원이 있었어야 했어  
요. 나는 공주 아닌 공주처럼 살 때, 야학을 다니

면서 내가 할 일은 이일이다 싶었어요. 학생들이  
랑 같이 있으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고 편하더라고  
요. 이게 투쟁이라는 것은 생각 못하고, 내가 못하  
는 건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 사람들이 어려운 건  
내가 도와주고 하는 교류를 보면서 사는 건 이렇  
게 살아야하는 거다... 2000년 늦은 가을부터 다  
녀서 2006년 초에 졸업을 했지요. 시험 치는 것  
도 너무 좋았고, 그랬어요.

**아영** 이동은 교통봉사대에서 지원을 했더라도,  
활동보조와 같은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명애** 수동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는 딸이 도와  
줬어요. 가끔은 야학선생님들이 해줬었죠. 엄마  
가 열심히 사는 것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딸에게도 다른 방식의 교육이었지 않나 싶어요.  
이사를 하고 나니까 한 번에 7천원씩 교통비가  
드는 거예요. 비용이 세니까 방법을 구했어야 했  
어요. 그때 사랑의 리퀘스트에 사연을 올려서 야  
학을 다니고 싶다 그러니까 전동휠체어가 지원  
됐어요. 그날부터 한 시간 정도 전동휠체어 타고  
야학을 갔어요. 한 시간 동안 못 봤던 새로운 길  
들을 보고, 내가 원하는 길로 다니고 만지고 싶  
은 것들 만지면서 돌아다니니까 좋았어요.

**아영** 야학이 명애 님의 삶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했을 것 같아요. 야학을 다니면서 기억나는  
부분들에 대해 들어보고 싶어요.

**명애** 2006년 2월에 야학을 졸업했어요. 그해  
전부터 대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계속 받  
다가, 2006년 1월 총회에서 대표를 했어요. 자신  
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장도 잘 찍지도 못하는

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전동휠  
체어 타고 있는데 뒤에서 불자동차(소방차)가 지  
나가는 걸 봤어요. 소방차 안에서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있더라고요. 남의 생명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준비하는데 나도  
대표 하면서 준비하고 채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  
각이 들었어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 기  
억 중에 하나예요.

**아영** 다시, 활동지원서비스로 돌아와서 이야  
기를 해볼게요. 제가 자주 다른 게 궁금해지네  
요. 무튼 2007년엔 처음 받아보는 서비스잖아  
요. 어떠셨어요?

**명애** 누군가한테 뭔가 부탁하니까, 낯설고 그랬  
는데, 부부간에도 이 사람을 알았다 싶다가도 새  
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장애감성을 알고서 시작한 일이 아닌 사람들도 있  
고,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 사람  
들도 있으니 좀 서툴렀죠. 나는 어색하고 낯설었  
어요. 그래도 봉사자하고는 다른 느낌이 있죠. 나  
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나오는 것  
이니까, 우리도 이용자로서 정확히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래야한다는 건 아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영** 하루 6시간 정도 쓰시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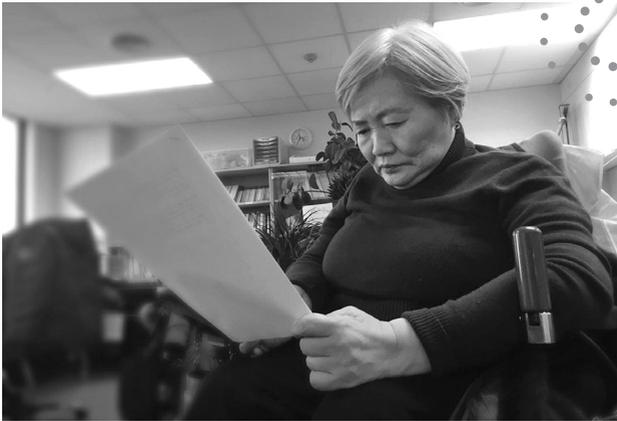
**명애** 식구들이 있을 때는 사무실에서만 이용했  
어요. 책상정리하고, 밥을 사무실에서 먹을 때 밥  
차리고, 밖에 돌아다닐 때 휠체어 따라다니고. 저  
랑 정반대의 삶을 살았을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지내니까 좋고, 그 사람이 살았던 노하우도 듣고,  
나의 이야기도 하면서 장애인의 삶에 대해 알게  
되시기도 하고. 초창기에 있었던 분들과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영** 1년 후면 만 65세가 되세요. 정확하게  
2019년 1월 7일에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되시는  
데요. 활동보조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는 들  
어보셨어요?

**명애**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면, 60시간정도  
될 거라고 하고 뭐 듣긴 들어봤는데요. 난 실제로  
우리 엄마가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치매가  
심해도 (노인장기요양) 하루 4시간 이상 못 받는  
걸 봤거든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  
제도는 우리 같은 장애인한테 안 맞는다는 걸 너  
무 잘 알고 있구요. 진짜 두려워요. 노인장기요양  
같은 경우에 노인에게도 시간이 굉장히 적은 거  
죠. 그분들이 4시간 이후에는 요양병원에 가야하  
거나. 가족의 부담으로 남아야 해요. 그러니까, 가  
족들한테 다 부담이 생기고, 불화가 안 생길 수가





없죠. 부모를 갖다 버린다는 말이 진짜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아영** 지금의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1년 후에는 노인장기요양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노인장기요양에서 '등급 외'를 받아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건데, 최종중 장애인의 경우에는 '등급 외'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명애** 옛날에는 혼자 생활할 수 있구나 하면 활동보조를 못 받았잖아요. 진짜 웃긴 짓이요. 내가 몸 불편한 것도 말고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걸 다른 사람 앞에서 판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고. 말로 뭐라고 하기가 어렵네요. 65세 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등급 판정 받을 때 내가 못한다는 걸 보여 줘야하고, 그리고 색안경 끼고 못하는 척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오면서 살아온 우리데. 이제 65세 넘어서는 내가 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목욕도 못 하고 뒷도 못 해요

하던 걸, 이제 목욕도 할 수 있고 뒷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아영** 만약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셨다고 생각해보시고, 하루 최대 3시간 정도일 것 같은데 그 때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명애** 많이 달라지죠. 매일 못 받고, 월수금을 받고 있거나 일주일에 5번 받거나 그렇겠죠. 지금은 아침 11시 반쯤 와서 밤 9시까지 하면 10시간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야 사무실 일을 하고 밥 먹고 저녁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안 되는 거죠. 그럼 집에 있다가 3시간 안에 한 번 아침을 먹거나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거나 선택해서 먹어야 할 것 같네요. 두 끼를 어떻게 먹겠어요.

**아영**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까요?

**명애**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던 사람이건 안 받던 사람이건 장애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노인이 돼서 장기요양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

람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더 나빠지고 사람이 더 필요할 텐데. 활동보조서비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걸 갖다가 받던 사람이니까 구제가 되고 전혀 안 받던 사람은 등급 매겨야하고, 그걸 전전공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게요. 자기들(복지부)은 얼마나 좋은 자리가 앉아서 부모들한테 잘하고 있기에, 이런 발상과 실험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영**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분들에게도 굉장히 적은 시간..

**명애** 화려한 도시를 보면 힘 있고 돈 있을 때 나 누릴 수 있는 건가 보다 싶어요. 나이 들면 주는 밥만 먹고 살라는 것 같아요. 하루라도 생명을 단축해서 빨리 떠나주기를 바라는 거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활동보조라도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보고 이런 저런 의욕을 가질 텐데, 의욕조차 끊어버리고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

리는 거죠. 힘 빠지면 바로 버려버리는 비정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한국 복지제도의 이중 잣대를 그대로 보여준다. 사회적 약자의 타이틀은 언제나 하나여야 한다. 장애인이거나 노인이거나. 한 사람이 중첩되는 취약성을 가질 때, 현 제도 내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제도에 맞추게 된다. 노쇠했다고 해서 추가되는 시간은 없다. 장애노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노쇠한 몸이 아니어야 하고,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어야 한다. 그래야 노쇠한 몸은 무시하더라도 장애를 가진 몸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 결국 장애노인은 시간별로 나누어진 서비스 안에서 생존의 저울질을 지속해야 한다.

# 조선동님을 만나다

탈시설 지원 후기

≡≡≡ 박준호

노들야학 교사. 야학 수업 잘하고 싶어요.  
새해부터 놀고 있습니다. 집이 너무 추워요.



언어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오고가는  
한 두 번의 대화로 끝날  
말인데 선동이형과의  
대화에는 몇 십 번의  
확인과 응답이 필요했다.

2016년 10월 가평 꽃동네에서 선동이형을 처음 만났다. 꽃동네에서의 만남 이전에 나는 사진으로만 그를 몇 번 보았었다. 사진에서 보았던 선동이형은 휠체어를 타지 않고 서 계셨고 웃는 얼굴이 참 예뻐 보이는 사람이었다. 꽃동네에서 선동이형을 실제로 처음 보았을 때 형은 생기 없는 표정에, 갸마르고, 머리를 삭발하고서는 긴 휠체어에 거의 누워서 나오셨는데 이 사람이 내가 봤던 사람이 맞나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형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언어 장애가 심한 사람이었다. 선동이형이 함께 꽃동네를 방문한 노들 교사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나는 선동이형이 오래 알고 지낸 홍은전 교사와 선동이형의 탈시설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김필순 교사와 이야기를 많이 하시라고 대화에서 발을 빼고 있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한명이라도 더 붙어서 선동이형의 말을 알아듣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동이형의 짧은 말과 표정과 왼손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말을 듣고 맞추는 것은 마치 스무고개를 하는 것 같았다. 언어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오고가는 한 두 번의 대화로 끝날 말인데 선동이형과의 대화에는 몇 십 번의 확인과 응답이 필요했다.

선동이형은 무엇인가 그 시간에 해야 하는 것은 꼭 해야 하는 사람인, 뭔가 집요한 성격이 있는 사람 같았다. 처음 만나 밥을 먹으며 한 이야기는 거의 핸드폰, 핸드폰의 주소록과 사진, 가방, 현금의 보관방법 등이었

다. 핸드폰에 있는 보관된 문자메시지를 지워 달라는 요청, 가지고 싶은 이어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있는 현금을 지갑의 몇 번째 칸으로 넣어달라는 요청 등등. 밥을 먹으며 한 이야기도, 차에서 뭔가 하는 이야기도, 대체로 저러한 것들이었다. 선동이형은 자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챙기고 안부를 묻거나 빈말이라도 “탈시설 하고 싶어”라는 말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그래도 선동이형이 잘 되지 않는 말로 끊임 없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요청하고 자기 물건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있으니 어쩌면 이런 점은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지난달에도 선동이형을 보러 갔다. 올해 3월, 6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방문이었다. 어쩐지 선동이형은 갈수록 건강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다행이다. 형은 12월에 1박2일 자립생활 체험을 하고 내년에는 시설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선동이형은 이런 사실과 무관하게 즐거운 일이 있어 처음으로 즐겁게, 낄낄 웃으며 식

사를 같이 하였다. 식사를 하고 들어가는 길에 선동이형은 과자를 3만원치나 사서 “내 평생 이렇게 과자를 많이 사본 건 처음이야”라며 돌아가는 길에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나는 선동이형을 잘 모른다. 형을 본 건 기껏 이번이 네 번째이고 아마 선동이형도 나의 이름을 모를 것이다. 나는 가끔 선동이형 한 명의 자립생활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이 사용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나도 누군가를 비용과 생산성으로만 바라보는 것인가 고개를 휘휘 저으며 부끄럽게 된다. 잘 알지도 못하는 선동이형을 매번 보러가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고자 하는 나름의 노력이다. 나도, 선동이형도 세상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저기 밑바닥 어디쯤 있는 존재일 것이다. 형은 나에게 비용이 될 수 없고 나는 형에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무지막지한 세상에서 함께 잘 살아보았으면 한다.



노들 책꽂이

# 이 죽음들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지음, 동아아시아, 2017)



강혜민

노들야학 신입 교사. 호호.  
맛있는 마카롱과 케이크를  
애인처럼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2017년 2월부터 자립생활 중.  
요리에 대한 로망이 있었으나  
요리란 설거지와 장보기와  
지출을 수렴하는 현실의 언어임을  
깨달고 그냥 밥 사먹는다.  
나도 자립생활기술 훈련 받고 싶다.

초등학교에도 가지 못한 그는 니체를 읽고 루쉰을 읽고 카프카를 읽었다. 그러나 중증장애에서 오는 무력감이 그를 번번이 무너뜨렸고 술에 삶을 의지토록 했다. 반지하에 홀로 살던 그는 작년 4월의 새벽, 소주 세 병을 마시고 심장마비로 숨졌다. 또 다른 이는 독감이 폐렴으로 진행되어 죽고, 또 다른 이는 돈이 없어 주저하는 사이 맹장염을 복막염으로 키워 수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발생한 화재를 피하지 못해 불타 죽고, 호흡기가 빠져 죽은 장애인도 있다.

비마이너에 들어온 지 5년 반, 이곳에 있으며 내가 맞이한 죽음들이다. 이곳은 다른 곳보다 장례식이 잦다. 통계를 가지고 있진 않으나 경험상 그랬다. 대부분의 죽음은 번개처럼 급작스러워 황망했다.

최근에도 죽음이 잇따랐다. 지난 7월엔 영상활동가 박종필 감독이 간암으로 숨졌다. 노숙인 문제로 시작해 장애인동 투쟁 현장을 성실히 담아온 그는 최근엔 416연대 미디어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한 달도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8월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로 부모운동을 해온 장애인부모운동가 박문희 씨가 심장마비로 숨졌으며, 9월엔 중증장애인

다시 물어본다.  
장애인은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쉽게' 죽는가.  
단지 장애 때문인가.  
이 고통에 사회적 책임은  
없는가.

활동가 두 명이 숨졌다. 11월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배정학 씨가 심장마비로 떠났다. 연이은 죽음에 장애인동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난 이 죽음들이 '자연사'일리 없다고 생각했다. 비록 물증 없이 심증뿐이지만, 죽음이 찾아오기 전, 몇 차례 몸이 신호를 보냈을 텐데 그들은 그 신호에 응답할 시간도, 돈도 없었을 것이다. 쫓기는 일정에 병원 갈 시간조차 없었을 그사이 병이 육신을 파먹었다. 다른 인권운동 현장이 그렇듯 장애인동 현장도 밤낮없이 일하지만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가난하다. 게다가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경우, 장애는 가난과 함께 여러 질환을 동반하는데, 가난과 장애, 합병증이 들이닥치는 재난 같은 현실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몸을 조여 오는 고통들을 충분히 돌보기 어렵다.

그 무참함 속에서 이 책을 퍼들었다.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을 쓴 김승섭 고려대 교수는 사회역학자이다. 사회역학이란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찾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바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학문"이라고 그는 소개한다. 사회역학은 2000년에 첫 교과서가 나오고, 불과 10여 년 전부터 하버드대를 비롯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주기 시작한 신생학문이다.

책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는 차별과 같은 사회적 폭력 역시 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과학적 데이터로 제시한다. 차별과 폭력을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언어화하지 못해도 몸은 그 상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중 학교 폭력에 대한 문항에서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답한 학생들의 우울증상 유병률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답한 '여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여학생들의 유병률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남학생'들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모든 집단 중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는 말이 남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용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한국처럼 남자가 힘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남자라면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

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어쩌면 그들은 '강한 남자'로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속인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질병)이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질병의 원인을 "개인 차원의 고정된 요인으로만 가정"한다. 책은 이러한 사회에 책임은 없는지 물으며 질병의 '원인의 원인'에 대해 탐구한다.

책을 덮으며 지난 시간 동안 마주한 영정 속 얼굴들이 떠올랐다. 장애인은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많이 죽을까.

장애가 있는 몸은 이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노동하기 어려우니 빈곤할 수밖에 없고 돈이 없으니 병원에 가기도 힘들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려면 이동해야 하는데 버스 타기도 힘들고 대기 시간만 기본 2~3시간인 장애인콜택시 타기도 힘들다. 병원에 가더라도 의료시스템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고 의사들은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이 아프더라도 고통에 대한 감지가 힘들다. 그렇다고 이를 조력할 만한 사회적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고통은 평등하게 발화되지 않는다. 어떠한 고통은 발화되지만, 어떠한 고통은 사회적 힘에 억눌려 고통의 당사자조차 이를 고통이라 인지하지 못한다. 그렇게 고통에도 '사회적 승인'이 필요하다. 고통의 발화 여부가 사회 계층, 성별마다 다르다면 '고통의 주체'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운동이 되는 걸까. 그렇게 싸우려면 이 고통을 증명할 무기가 필요할지 모른다. 이를테면 과학적인 데이터 말이다. 저자는 소방공무원, 세월호 생존 학생, 성소수자,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만나 그들 건강에 대해 연구하며 그러한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다시 물어본다. 장애인은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쉽게' 죽는가. 단지 장애 때문인가. 이 고통에 사회적 책임은 없는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제정됐으나 5년마다 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이외엔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채워져 있어 법률 이행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할 수 있다'는 조항의 내용 또한 건강검진사업,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기본적인 의료 처치에 대한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회의적인 응답만 자꾸 고개를 든다. 장애에서 오는 좌절감으로 술에 의지해 만신창이가 된 그의 삶/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건강'을 의료적 관점에 두고 입을 때와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대한 문제로 접근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해법을 도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 건강'에 대해 우리는 '질문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이 황망한 죽음을 더는 마주하고 싶지 않다.

## 최후변론

2018년 1월 8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8호에서

존경하는 재판관님,

제가 이곳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결받기 전에 재판관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판관님, 2015년 4월 15일, 새벽 6시경.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한 아버지가 가족들이 집안을 비운 사이에 혼자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친자식의 뒤통수를 망치로 세 번치고, 그레도 죽지 않자 목 졸라 살해한 사건(사건 2015고합111 살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새벽에 망치로 맞아 죽은 친자식은 41살의 지적장애 1급인 장남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수십 년 동안 집에서 돌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늙고 병들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고, 자신이 죽고 나면 처와 둘째 아들이 그 장애인 아들을 돌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심히 부담이 될까 봐, 그 장남을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 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20일, 전주에서도 한 아버지가 장애인 아들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경기도 여주에서 또다시 한 어머니가 장애

인 아들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단 3일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두 명의 부모가 두 명의 장애인 자녀를 살해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그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는 그 부모와 가족들이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느라 가중되는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선택한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재판관님, 그런데 과연 그 부모가 살인자일까요.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에 이 사건들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에게조차 죽임을 당하는 중증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지하철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공간이동'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를 이 사회

에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민들과 친숙하게 다가서기 위해 리듬도 경쾌하고 그 당시 유행했던 ‘랩’도 있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랩 부분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내 모습 지옥 같은 세상에 갇혀버린 내 모습, 큰 모순, 자유, 평등, 지키지도 않는 약속 흥! 닥치라고 그래, 언제나 우린 소외받아왔고, 방구석에 ‘폐기물’로 살아있고 그만 식으로 쳐다보는 차별의 시선, 위선 속에 동정받는 병신인 줄 아나! 닥쳐 닥쳐라, 우린 병신이 아냐!!”

그 당시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 인구의 70.5%가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고, 거리의 턱 때문에, 그리고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사회 전체가 장애인들에게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버스도 같이 탈 수 있도록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을 만들어서 제3조에 (이동권)이라는 권리를 명시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3조 (이동권) :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법은 2001년에 장애인이 오이도역 지하철리프트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4년을 싸워서 2005년 1월 27일에 제정이 되었던 법입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는 장애인들이 한 대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에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버스사업자나 국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동서울버스터미널에 고속버스 차표를 끊고 매번 명절 때마다 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고 싶어 버스표를 끊고 고속버스를 타러 간 것입니다. 그것이 집회가 되어 불법 집회라 검찰이 기소한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인다 해도, 중증장애인들이도 평등하게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동권. 재판관님 그것을 함께 지켜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이동할 수가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중 45%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70명이 넘는 중증장애인들이 학령기에 마땅히 초등학교에 다녔어야 하는데 장애 때문에 받지 못해서 지금 그들과 함께 밤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들이 지역사회

에서 완전하게 통합하여, 이 사회에 함께 참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노들장애인야학 학생들 중 다수는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기 위하여, 늦은 나이에 장애인을 수용하는 거주시설에서 탈출하듯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밤에 시설에서 기어서 탈출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공부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수용하는 거주시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곳이 바로 ‘꽃동네’입니다. 교황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신다 했을 때 저희들은 많이 기뻐했습니다. 세월호 광장에 유가족들을 만나서 위로한다는 뉴스를 보며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 ‘꽃동네’를 방문하신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도 수용중심의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 수 있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탈시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님의 꽃동네 방문 소식은 우리의 눈앞을 캄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동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단지 교황님께서 대표적인 장애인 수용시설인 꽃동네를 찾아가지 말아 달라고 간곡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교황님처럼 힘 있는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꽃동네를 간다는 것은 한국에서 탈시설을 꿈꾸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큰 절망을 안겨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현실을 잘 모르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온 정부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가 될까 봐 심히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명동성당을 찾아가는 것은 이 밖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동성당에서 우리를 막아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회가 힘없는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포용하는 곳이라 생각했던 것이 우리들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명동성당에 들어가려다 갑자기 일어난 불상사에 대해서는 명동성당에 깊이 사과를 드렸고 지금도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관님,  
우리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개새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학생은 35년이 넘어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고 노들야학을 다니면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집구석에서만 있었고, 부모님들이 직장에 나갈 때면 그는 ‘밥 먹어라. 집 잘 봐라’란 말만 들어야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

면 ‘밥 먹었냐. 집 잘 봤냐’며 한 말이 그가 들은 말의 전부였습니다. 동생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구석방으로 비켜서 혼자 지내야 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개새끼’라 여겼답니다. 집만 지키는 ‘개새끼’ 말입니다.

재판장님,

부모에게 맞아 죽어야 했던 그 자식들의 처참한 현실과 자신을 ‘개새끼’라 생각하는 우리 노들 장애인아학 학생들의 피눈물 나는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헌법 제11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진실을 재판관님께서 지켜주시고 증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은 방구석과 시설에서 쓸모없는 폐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부담스러워 그 자식을 죽였습니다. 그 자식을 집구석에 개새끼처럼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보내버렸습니다.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것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중증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은, 법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하지만, 정부는 언제나 예산 타령으로 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그 모든 집회와 시위는 중증장애인들이 이 세상에서 ‘폐기물’로 처분당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 높여 외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 사회에서 무척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그 권리를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리가 뿌리내리게 해주십시오.

재판관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1. 9. 박경석 드림.

\* 이날 검찰은 박경석 고장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월 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2017년 12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MS후원인**

(주)머스트자산운용, 강남훈, 강문형, 강병완, 강복현, 강선아, 강성윤, 강수혜, 강영미, 강영미2, 강용원, 강정자, 강주희, 강현욱, 강희관, 강희연, 고경신, 고경화, 고동수, 고명수, 고명희, 고선희, 고승현, 고이라, 고재현, 고정화, 고제현, 공명렬, 공선화, 공정옥, 광노근, 광상아, 광성자, 광영미, 구경민, 구수준, 구승기, 구자옥, 구정서, 구현아, 권경숙, 권기원, 권기진, 권미경, 권병주, 권순만, 권순성, 권영주, 권영진, 권용희, 권익재, 권종근, 권진영, 권태국, 권혁은, 권현기, 김기경, 김각균, 김건우, 김건형, 김경은, 김경혜, 김관희, 김광국, 김규리, 김규태, 김근식, 김금례, 김기룡, 김기성, 김기오, 김난, 김남수, 김대희, 김도경, 김도현, 김동은, 김동진, 김두경, 김란희, 김명학, 김명화, 김문수, 김문호, 김미선, 김미성, 김미영, 김미영2, 김미옥, 김미주, 김미현, 김민, 김민림, 김민아, 김민아2, 김민영, 김민자, 김민희, 김범수, 김범식, 김병모, 김병렬, 김보라미, 김보연, 김보영, 김복순, 김봉덕, 김봉석, 김부연, 김상원, 김석규,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영2, 김선욱, 김선화, 김선희, 김설민, 김성미, 김성숙, 김성은, 김성현, 김성희, 김세영, 김소영, 김소희, 김수경, 김수영, 김수진, 김수한, 김수현, 김수호, 김숙이, 김순남, 김승혜, 김아람, 김안지, 김애경, 김연성, 김연수, 김연욱, 김연희, 김영년,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영승, 김영욱, 김영희, 김용남, 김용성, 김용우, 김용욱, 김용진, 김용진2, 김용태, 김우경, 김원숙, 김유미, 김유정, 김윤경, 김윤석, 김윤자, 김윤정, 김윤진, 김은미, 김은주, 김은희, 김이중, 김인숙, 김인숙2, 김재경, 김재양, 김재희, 김정미, 김정민, 김정민2, 김정순, 김정하, 김정현, 김종윤, 김종호, 김준, 김준호, 김준희, 김지민, 김지숙, 김지순, 김지연, 김지연A, 김지영, 김지에, 김지은, 김지현, 김지환, 김진수, 김진수2, 김진우, 김창배, 김태수, 김태인, 김태형, 김태훈, 김판균, 김푸른솔, 김필순, 김하은, 김한민, 김현영, 김현순, 김현식, 김현영, 김현주, 김현희, 김현희, 김형배, 김혜경, 김혜미, 김혜옥, 김혜진, 김홍희, 김희정, 김희창, 김희현, 나선영, 나정숙, 나혜니, 남대호, 남두형, 남정민, 남지현, 남효진, 노경애, 노규호, 노미경, 노상경, 노의현, 노현택, 노혜련, 도희선, 도희정, 류영욱, 류승화, 류정숙, 류정하, 류향희, 류혜인, 마미주, 맹보영, 문건화, 문경희, 문병준, 문상태, 문성원, 문소리, 문예진, 문지의, 문창배, 민아영, 민혜숙, 박경석, 박경숙, 박경아, 박경혜, 박경화, 박계선, 박광수, 박금숙, 박누리, 박다정, 박명숙, 박묘근, 박민경, 박민영, 박민우, 박보건, 박상일, 박상호, 박서희, 박선예, 박선은, 박성욱, 박성환, 박성희, 박세단, 박세레나, 박세진, 박세호, 박수인, 박수진, 박승하, 박시백, 박애경, 박여의, 박연희, 박영민, 박영환, 박완신, 박은미, 박은정, 박은정2, 박창근, 박창근, 박재국, 박정수, 박정원, 박정희, 박종진, 박종철, 박주원, 박준호, 박지민, 박지영, 박진우, 박찬양, 박철우, 박태만, 박하순, 박현미, 박현민, 박현희, 박홍석, 박희선, 방복순, 배경원, 배덕민, 배문섭, 배승천, 배안나, 배운주, 배진숙, 백미라, 백수경, 백승혜, 백연희, 백연희2, 백윤희, 백재선, 서기현, 서남교, 서동석, 서명순, 서명아, 서미선, 서민영, 서민희, 서봉경, 서옥영, 서유나, 서은수, 서정웅, 서주형, 석지윤, 선혜란, 성정현, 성창기, 성희욱, 소현미, 송동각, 손병갑, 손성권, 손성한, 손은경, 손은주, 손자경, 손제주, 손주영, 손준희, 손혜연, 손환목, 손희경, 송기호, 송무림, 송상훈, 송선화, 송영란, 송우영, 송재영, 송종호, 송창국, 송현정, 송호경, 신미현, 신복순, 신봉준, 신수정, 신수정2, 신숙희, 신수영, 신순자, 신승애, 신연실, 신영근, 신원정, 신은덕, 신은희, 신임식, 신정숙, 신진, 신현훈, 심미경, 심보름, 심선진, 심은선, 심이영, 심인섭, 심정규, 안경모, 안남희, 안문필, 안바라, 안병호, 안석호, 안선영, 안소진, 안영춘, 안정애, 안정은, 안종녀, 안준희, 안지혜, 안향미, 안희옥, 양무현, 양석주, 양수경, 양수정, 양순근, 양유진, 양이승, 양인순, 양정화, 양현준, 어수진, 엄재균, 엄주철, 여준민, 오미영, 오민정, 오보람, 오상만, 오세령, 오영철, 오원주, 오은영, 오정환, 오정자, 오정희, 오지은, 오진희, 옥색, 유승영, 유인숙, 원명재, 원성현, 위순철, 유남숙, 유문수, 유미선, 유보배, 유선희, 유애리, 유영순, 유창재, 유혜경, 유희준, 윤경훈, 윤기남, 윤기범, 윤길중, 윤동구, 윤명섭, 윤미라, 윤미선, 윤봉섭, 윤석규, 윤선기, 윤승용, 윤승원, 윤이용, 윤인진, 윤정미, 윤정민, 윤정은, 윤정임, 윤준서, 윤호진, 윤화숙, 윤희, 이광수, 이건학, 이건호, 이건희, 이경덕, 이경아, 이경운, 이경윤, 이경훈, 이경훈2, 이경희, 이계삼, 이광만, 이광재, 이규식, 이근희, 이금희, 이금희2, 이기순, 이길용, 이나라, 이동은, 이동진, 이두혁, 이나라, 이라라, 이리나, 이리나, 이미리, 이미영, 이미영2, 이미정, 이미지, 이비함, 이상림, 이상준, 이서운, 이서준, 이석원, 이선진, 이선희, 이선희A, 이선호, 이성희, 이소영, 이소정, 이수연, 이수영, 이수정, 이수현, 이순운, 이승민, 이승훈, 이일찬,

## 후원방법 안내

### 1 후원계좌 안내

- **노들장애인야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장애인극단판**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현수막공장 노란들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 2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와 직접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3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이연옥, 이연주, 이영란, 이영미, 이우현, 이원진, 이우미, 이유진, 이윤경, 이윤옥, 이윤주, 이윤지, 이은숙,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2, 이인영, 이장우, 이재령, 이재승, 이정실, 이정은, 이세성, 이세현, 이종국, 이종란, 이종실, 이종현, 이주오, 이주옥, 이준길, 이준범, 이지수,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지은2, 이지환, 이진실, 이진영, 이진영2, 이진주, 이찬미, 이철우, 이태근, 이학인, 이한숙, 이한호, 이현명, 이현숙, 이현아, 이현옥, 이현진, 이형록, 이호연, 이호영, 이호중, 이회국, 이호정, 이호진, 이희은, 임경희, 임나미, 임덕심, 임동근, 임산하, 임소연, 임영희, 임원택, 임은영, 임은정, 임인자, 임주현, 임채원, 임춘희, 임하연, 장경주, 장귀분, 장근영, 장명희, 장미희, 장상순, 장선영, 장성권, 장성아, 장순임, 장옥란, 장원, 장정아, 장정환, 장준환, 장혜미, 장효정, 전경래, 전권세, 전기성, 전대진, 전문갑, 전미라, 전미영, 전민숙, 전상우, 전성자, 전옥, 전을천, 정규명, 정다운, 정대수, 정대훈, 정동식, 정명진, 정미란, 정민구, 정병순, 정상엽, 정상옥, 정선애, 정선옥, 정성락, 정성철, 정송이, 정연숙, 정영란, 정영석, 정영자, 정영호, 정용근, 정용안, 정용훈, 정우중, 정우준, 정은영, 정유진, 정은경, 정은미, 정익화, 정재훈, 정종권, 정종화, 정종훈, 정지영, 정지혜, 정진영, 정진이, 정창조, 정택옥, 정현강, 정현찬, 정현찬, 정혜림, 조경애, 조미숙, 조미숙2, 조미연, 조미정, 조봉현, 조사랑, 조선희, 조성진, 조승하, 조원일, 조윤경, 조윤실, 조윤정, 조은별, 조은주, 조은진, 조응현, 조이라, 조자영, 조재범, 조한나, 조혁진, 조현경, 조현수, 좌동업, 좌미경, 주상연, 주상희, 주영은, 주용춘, 주은아, 지덕근, 지세진, 지암 메디테크, 지영숙, 지혜를, 진영옥, 진태원, 차순정, 차종원, 채이배, 천성호, 천영희, 천종민, 천진수, 초롱잔디(김성호), 최귀선, 최동호, 최미란, 최병훈, 최병희, 최보경, 최석문, 최선아, 최선호, 최승우, 최영숙, 최영식, 최영은, 최영자, 최우영, 최윤선, 최은경, 최은숙, 최은아, 최재민, 최재호, 최재희, 최정민, 최정원, 최정은, 최정은2, 최정희, 최찬일, 최하정, 최한별, 최현정, 최현진, 최혜영, 하경남, 하정자, 한경훈, 한남희, 한명숙, 한명희, 한상배, 한상엽, 한사회, 한성안, 한송희, 한양재, 한주영, 한혜선, 한혜원, 한희자, 허보영, 허숙자, 허순인, 허신행, 허영신, 허원수, 허정일, 허진태, 허창, 허효재, 현정민, 홍도순, 홍성미, 홍성호, 홍승대, 홍순희, 홍영선, 홍영희, 홍은진, 홍은진, 홍주영, 홍진표, 홍철기, 홍혜리, 황무초(무밍), 황성윤, 황승미, 황정희, 황진미, 황하연, 황혜진, 황희준

### 계좌이체 후원인

(주)티에이치엘, 강귀화, 고명선, 고병권, 고병철, 고훈복, 공공운수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김명학, 김미선, 김상희, 김연정, 김에리, 김재경, 김태식, 김희경, 나해니, 남완승, 대한불교조계종 대성사, 라나성룡, 류승화, 모꼬지화팅, 박경석, 박성준, 박여의, 박은솔, 박찬오, 박창용, 박현규, 방극동, 배서우, 불가항력, 사랑의후원금, 송영자, 엠알엠글로벌,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상만, 오장환, 오하나, 왕윤정,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수현, 이동환, 이재덕, 이정원, 이한진, 이현아, 이현우, 이형숙, 이형욱(부개성누, 이형욱(부개성누), 이효상, 재)아름다운동행,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전윤우, 전준규, 정성철, 정옥순, 정우영, 조광배, 조아라, 조현수, 종로장애인복지관, 착한콜위드고, 학봉장학회, 허병권, 홍성미, 황재숙, 희망열차(김낙현), 허옥스

### <노들로 들어온 선물>

- 11월 • **밀양 미니팜 협동조합** 반시, 쌀 8kg / **정우준 대봉감** 4상자 / **한 살림(외내들 협동조합)** 쌀 3상자 / **여상범 감귤** 3박스
- 12월 • **한 살림(외내들 협동조합)** 쌀 3상자 / **박상준 서귀포 감귤** / **안선희 떡** 3상자 / **금민정 커피믹스** 1박스 / **양수경 커피믹스** 1박스 / **김선경 식빵**, 음료수 등



노란들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실사출력, 인쇄디자인 전문 사회적기업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일터, 서로의 꿈이 상상하는 곳, 모두를 위한 들판을 꿈꿉니다.

디자인 + 인쇄 · 실사출력 · 타이벡  
T 02.469.9101 H www.norandp.co.kr

### NEW BRAND 공생공장

타이벡 made with DuPont™ Tyvek®

사람과 자연이 같이 살아가며 만드는 곳

‘공생공장’은 타이벡 원단 소재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기존 일회용 현수막을 대체하는 노란들판만의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고자 하는 노란들판만의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공생공장은 사회적기업 노란들판의 친환경 브랜드입니다. 노란들판의 감성을 담은 디자인 제품으로 찾아가겠습니다.

Waterproof · Super Light · 100% Recyclable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H.P www.ncil.or.kr  
EMAIL nodl@hanmail.net SNS @nodlcl  
TEL 02-766-9103 MOBILE 010-5766-9103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P www.420pan.or.kr  
EMAIL centerpan@420pan.or.kr  
TEL 02-6082-6420

##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활동보조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급보조인의 다양한 보조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자격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만 6세~65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활동보조인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보조 기본교육 이수 필요

노들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싶거나 궁금하게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T 02-766-9120 F 02-6937-1701 E nodeul@gmail.com

암을 앓고 난 후에는 예전에 있던 곳으로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변화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도 비싼 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너무도 많은 고통을 보았고, 특히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은 갖기 어려울 수도 있는 어떤 관점에서 고통을 보았다. 삶이라는 게임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할 수는 없었다. 예전의 나를 회복하기보다는 앞으로 될 수 있는 다른 나를 발견하고 싶었다.

『아픈 몸을 살다』, 봄날의책, 2017

저자 아서 프랭크 / 역자 메이

